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성 미

2012년 8월

「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태 곤

강 성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강성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중심으로 -

강 성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태곤

본고는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인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비교 연구하여 후기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각 이본의 특징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성은 양 異本 모두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자음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를 쓰고 있다. ‘△’은 喜方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 중성에서는 15세기 국어의 7단 모음 체계와 이중모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성의 표기는 喜方寺本은 8종성법에, 龍珠寺本은 7종성법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겹받침은 龍珠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 양 이본 모두 연철, 분철, 중철 표기가 나타난다.

둘째, 음운을 살펴보았다.

모음은 양 이본 모두 ‘·’의 동요와 함께 모음조화 붕괴 현상과 원순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음은 양 이본에서 구개음화와 격음화, 경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음운 현상들은 모두 龍珠寺本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喜方寺本에서는 자음탈락 현상으로 ‘ㄱ’탈락 현상이, 龍珠寺本에서는 어중 모음 간 ‘-ㄹㄴ-’ 표기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문법에서는 조사와 어미에 국한하여 논하였다.

조사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누어서 각 이본에서 사용된 조사들을 알아보았다. 어미는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어 마찬가지로 각 이본에서 사용된 어미들을 살펴보았다.

넷째,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들을 두루 살펴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양 이본에서 사용된 어휘들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보면, 喜方寺本에서 고유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유어의 사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유의어를 사용하거나 어형변화 등이 나타났다. 양 이본에서 사용한 한자어는 모두 현대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이다.

<目 次>

<國文抄錄>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범위	1
2. 선행연구 검토	3
II. 표기의 비교	6
1. 초성 표기	6
2. 중성 표기	9
3. 종성 표기	10
4. 연철·분철 표기	12
III. 음운의 비교	16
1. ‘·’의 동요	16
2. 모음조화 붕괴	18
3. 원순모음화	21
4. ‘△’의 소실	24
5. 구개음화	26
6. 경음화	29
7. 격음화	33
8. ‘ㄱ’ 탈락	35
9. 어중 모음간 ‘-르ㄴ-’표기	36

IV. 문법의 비교	38
1. 조사	38
2. 어미	45
V. 어휘의 비교	50
1.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50
2.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	67
3.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	81
VI.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1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범위

후기 중세국어 특히 15세기 중엽은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주된 이유는 이때에 訓民正音が 창제되어 많은 문헌이 訓民正音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전하는 15, 16세기의 정음 문헌은 거의가 중앙의 간행물들이고 궁중 기관에서 편찬한 것들로 현저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문헌의 대부분은 언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들은 한문의 번역문이 가지는 독특한 문체를 보여준다. 언해를 함에 앞서 한문에 구결을 달아 그 독법을 확정함이 상례였으므로 이 번역문은 구결에 구애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헌에서 당시의 생생한 국어의 현실을 보기는 어려운 일면이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諺解本과 같은 문헌의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異本의 등장은 국어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父母恩重經諺解」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諺解本을 가지고 있는 자료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도 여러 종이 있다. 板本들이 覆刻되는 과정에서 전 시대의 것을 답습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온전히 그 시대를 반영한 언어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인 특색이나 음운 변화 등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 「父母恩重經諺解」의 판본 비교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父母恩重經諺解」의 원 명칭은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이다. 흔히 「父母恩重經諺解」나 「恩重經諺解」라 부른다. 석가가 그의 제자와 대중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설법한 내용 가운데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덕과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해야 할 효행에 관한 것만을 정리한 것이다. 석가의 여러 제자 중 가장 충명한 아난타가 글을 썼다고 한다. 글의 말미에 부처가 이 경을 ‘父母恩重經’이

1) 이기문(1994),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p.150.

라 명명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佛說’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아란이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父母恩重經諺解」의 많은 이본 중 喜方寺本(1592)과 龍珠寺本(1796)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喜方寺本은 1592년에 경상북도 소백산 회방사에서 판각된 것이다. 가람문고에 소장되었고, 앞 선 시기에 판본들과 판식이 동일하다. 자체가 비교적 고르고 가늘며, 삽화는 생략된 부분이나 다른 것으로 그린 부분 등이 나타난다. 본문 26장 중 5, 6, 11, 12, 25, 26 등이 낙장이며, 시주명, 간기, 각수명 등 1장으로 모두 27장이다. ‘△’은 자주 쓰였으며, ‘ㅇ’과 방점이 약간 나타난다.³⁾ 喜方寺本은 복각된 것이기는 하나 원간대로 복각하지는 않은 듯하고, 시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연구 자료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希方寺에서 멀지 않은 죽령은 예부터 충청도와 경상도는 물론 강원도를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였기 때문에 喜方寺本은 언어 지리적으로 보아서도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龍珠寺本은 가장 널리 알려진 恩重經의 하나로 正朝 20년에 수원 龍珠寺에서 刊行되었다. 이 책의 판본은 他本들과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며 諺解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 있다. 앞에 漢文本, 뒤에 諺解本으로 되어 있고, 漢文本은 과판 2장, 도면 7장, 본문 22장으로, 諺解本은 본문 49장으로 되어 있다. 他本들은 한문단이 끝나면 언해가 삽입되는 식의 기술을 했는데 이 책은 한문본과 언해본을 완전히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문본은 그 내용을 분절한 다음 각기 註譯文을 넣었으며 諺解本은 한글로 원문을 전사하고 토를 붙인 후 諺解文을 실었다. 註譯은 諺解文 속에 작은 글씨로 기록하였다.⁴⁾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은 번역 양상이나 어휘 사용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龍珠寺本의 경우 諺解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 있으며 두 판본의 간행 시기도 200년 이상 차이가 난다. 喜方寺本은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龍珠寺本은 근대 국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비교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양 이본에

2) 전광현(1986),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해제, 태학사, p.1.

3) 전광현(1986), 위의 책, p.6.

4) 전광현(1986), 위의 책, pp.9~10.

나타난 표기법, 음운, 문법, 어휘 등을 검토하고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바뀌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우선, 표기법에서는 초·중·종성에서 사용된 자모들을 살펴보고 표기상의 특징들을 찾는다. 둘째, 음운에서는 각 異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변화 양상에 대해 살핀다. 셋째, 문법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父母恩重經諺解」에 사용된 조사와 어미들을 비교·정리한다. 넷째, 어휘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의미변화와 어형 변화 등을 검토하고 각 이본에서 보이는 어휘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에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이본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후기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어지는 국어사적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父母恩重經諺解」는 시기별, 지역별로 많은 이본일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국어학 분야의 연구만을 살펴본다.

방옥산(1976)⁵⁾은 통도사 장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음운 현상 및 표기법을 고찰하였다. 표기에는 ‘△’, ‘○’, ‘·’ 등이 나타났으며, 음운에는 자음동화, 모음조화 파괴, 원순모음화 등을 발견하였다. 황홍주(1989)⁶⁾는 「父母恩重經諺解」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언해되고 간행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16세기 중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간행된 문헌 중 7개의 이본을 선정하였다. 이들에서 나타난 표기, 음운, 통사를 비교하여 각 이본에서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예들을 정리하고 차이점을 밝혔다. 최홍렬(1990)⁷⁾은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들 중 松廣寺本과 南高寺本을 선정하여 표기, 음운, 형태, 어휘를 비교연구 하였다. 松廣寺本은 16세기 중엽의 표기 형태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南高寺本은

5) 방옥산(1976), “부모은중경의 고찰<국학어> : 음운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 226~241.

6) 황홍주(1989), “『불설대보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 이본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최홍렬(1990), “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 송광사본과 남고사본의 이본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세기 중엽의 여타 문헌이 보여주는 표기 형태보다 더 보수성을 띠고 있음이 나타났다. 신중진(1996)⁸⁾은 을사본 「父母恩重經諺解」를 송광사본, 喜方寺本, 간기미상본 간의 이본관계를 밝히고, 표기, 음운, 문법, 어휘에서 나타나는 국어사적 특징을 연구했다. 유필재(1997)⁹⁾는 당시 「父母恩重經」의 최고본으로 알려졌던 동경대학교 문학부 소장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화장사본을 직접 확인하고 화장사본에서 보이는 성조표기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나의 어절에 대해서 한 음절에 거성 혹은 상성만이 표기 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중세국어의 성조 표기에서 각 어절에 나타나는 최초의 거성 혹은 상성의 위치와 일치함을 밝혀냈다. 최송이(2003)¹⁰⁾는 완주본¹¹⁾과 龍珠寺本을 비교 연구하였다. 두 이본의 한문본과 언해본을 비교하면서 한자 사용의 차이와 번역 양상의 차이를 밝혔으며 언해표현을 비교하였다. 비교적 어휘와 한자 번역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호권(2005)¹²⁾은 「父母恩重經諺解」의 판본들을 한문 원문을 초역한 것과 완역한 것으로 나누고 초역한 것을 정밀한 계통 수립을 위하여 다시 초역관계, 조원암관계, 금산사관계, 진정사관계로 나누었다. 이 초역관계 이본들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음운과 표기법, 어휘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 판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했다. 정재영(2005)¹³⁾은 불갑사 소장의 화암사판에 기입된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문은 기본적으로 音讀口訣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석독구결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라도 완주에서 간행된 여승구 소장본¹⁴⁾보다 더 많은 16세기 후반의 전라도 방언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윤가영(2005)¹⁵⁾은 「父母恩重經諺解」의 松廣寺本만을 가지고 표기법, 음운, 문법 등을 검토하였다. 松廣寺本은 16세기 중반 국어의 특징이 나타나며, 앞선 문헌의 영향을 많이 입었음을 밝혔다. 이경희(2006)¹⁶⁾는 이본들 중 松廣寺本, 喜方

8) 신중진(1996), “을사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국어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29~254.

9) 유필재(1997), “화장사판 《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진단학보」, 진단학회, pp.227~237.

10) 최송이(2003), “『부모은중경』의 언해본 비교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송일기(2001)는 전북 완주에서 「父母恩重經」諺解本을 발견하고, 이것을 ‘초역본’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최송이(2003)는 이를 완주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완주본’이라 명명하였다.

12) 이호권(2005),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에 대한 연구 : 초역판 계통의 유간기 판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0집, pp.65~87.

13) 정재영(2005), “불갑사 소장의 화암사판 『부모은중경』에 대하여 : 이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p.211~244.

14) 최송이(2003)는 이를 ‘완주본’이라 명명했다.

15) 윤가영(2005), “〈父母恩重經諺解〉(송광사본)의 국어학적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寺本, 龍珠寺本을 중심으로 표기, 음운, 문법, 어휘를 비교하여 국어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본 간의 번역 양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대체로 다양한 접근으로 국어학적 연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음운·문법·어휘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16) 이경희(2006), “<父母恩重經諺解>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II. 표기의 비교

「父母恩重經諺解」의 표기에 있어서 喜方寺本은 16세기 후반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龍珠寺本은 18세기 후반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연철과 분철 표기를 비교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喜方寺本에서 약간의 방점이 나타나긴 하나 이는 매우 적은 양이며 표기의 보수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도록 한다.

1. 초성 표기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인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의 초성 표기를 살펴보면, 양異本 모두 현대 국어에 쓰이는 14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이 다 사용되고 있다.

훈민정음의 본문인 「예의(例義)」에는 17자의 초발성자(初發聲字)가 예시되어 있다. 初發聲字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14자음 외에 ‘ㅇ, ㆁ, ㆁ’이 있다.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에는 초성에 ‘ㅇ, 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ㆁ’의 사용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ㆁ’은 훈민정음에 불청불탁의 반치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ㆁ’음은 후술하겠지만, 喜方寺本의 몇몇 어휘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龍珠寺本에서는 ‘ㆁ’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ㅁ슴(17a), 가슴이(17b), 시름(7b), 어버시(13b), 아슴(14b), ㅁ술(15a), 아슴오니(17b), 브스터(21a), 엇데ㅎ야사(3b), 이슴게사(17b), 이제사(17b)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ㆁ’은 여러 어휘에서 사용되었으며, 강제조사 ‘-ㅁ’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성 표기에서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 각자병서나 합용병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합용병서의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ㅃ	뽳	
ㅅ	뽳 것, 뽳기디, ㅅ디, ㅅ다가	-ㅅ, 뽳가시여, ㅅ 거슬, ㅅ여, ㅅ어, ㅅ호며, ㅅ슬, ㅅ가져, ㅅ러젓다가, ㅅ며, ㅅ실제
ㅅ	ㅅ며	ㅅ이고, ㅅ저
ㅅ	-ㅅ, ㅅ티, 년ㅅ, 잠ㅅ, ㅅ, ㅅ지럼, ㅅ조 줄, ㅅ여, -ㅅ, ㅅ락	-ㅅ, ㅅ히, ㅅ치며, ㅅ쳐-, 년ㅅ, ㅅ짓-, ㅅ스물, ㅅ지람, ㅅ어나, ㅅ듯-, -ㅅ지, ㅅㅅ, ㅅ코, ㅅㅅ치
ㅅ	ㅅ, 년ㅅ, ㅅ, ㅅ해,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러져, ㅅ글, ㅅ로도다, ㅅ나-, ㅅ라가, ㅅ치고, ㅅ러져, ㅅ러지-
ㅅ	ㅅ, ㅅ디느니	ㅅ, ㅅ, ㅅ혀나여
ㅅ		ㅅ기지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喜方寺本에서는 ‘ㅃ, ㅅ, ㅅ, ㅅ, ㅅ, ㅅ’이, 龍珠寺本에서는 ‘ㅅ, ㅅ, ㅅ, ㅅ, ㅅ’이 표기에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ㅃ’계 합용병서보다 ‘ㅅ’계 합용병서가 많이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합용병서 표기들 중 ‘ㅃ’은 喜方寺本에서만, ‘ㅅ’은 龍珠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ㅃ’이 사용된 단어는 ‘뽳’ 뿐인데 이는 龍珠寺本에서는 ‘ㅅ’으로 쓰이고 있다. ‘뽳’은 18세기 중엽까지의 문헌에서, ‘ㅅ’은 18세기 후기의 문헌에서부터 발견되는데 이는 16세기에는 주로 사용되던 ‘ㅃ’이 18세기 이후부터는 ‘ㅅ’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⁷⁾ 龍珠寺本에서 ‘ㅅ’의 용례는 ‘ㅅ기지’ 하나 뿐이다. 이는 喜方寺本에서는 ‘뽳기지’로 표기되고 있다. ‘ㅅ기다’는 「해동가요」(1763), 「경신록언석」(1880), 「아학편」(1908)¹⁸⁾ 등에서 발견된다.

17)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pp.139~140에 의하면 합용병서는 ㅅ계와 ㅃ계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를 후두화음이다. ㅅ계와 ㅃ계 모두 어원론적으로 2음절이었으며, ㅃ계가 ㅅ계로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15·16세기 문헌에서 주로 사용되던 ‘뽕기다’가 18세기 이후부터는 ‘쨍기다’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에는 각자병서도 사용되었다.

喜方寺本 : 따, 싸흠하며, 씨 날그며

龍珠寺本 : 쑤시논, 쓴거슬, 췌가식논, 몹쓸

각자병서로 喜方寺本에서는 ‘ㄸ, ㅍ’이 사용되었고, 龍珠寺本에서는 모두 ‘ㅍ’이 사용되었다. 이들 모두를 각자병서로 볼 수도 있지만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각자병서 표기는 사계 합용병서로도 해석할 수 있다.²⁰⁾

喜方寺本에서 ‘ㄸ’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地)’가 그 예인데 이는 ‘ㄸ’의 잔존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ㅍ’의 오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 각자병서는 15세기까지 ‘ㄱ, ㄸ, ㅍ, ㅍ, ㅍ’이 존재했었지만 「圓覺經諺解」(1465) 이후로 각자병서는 ‘ㅍ’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 喜方寺本에서 ‘地’를 ‘따’와 ‘ㅍ’를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실제로 각자병서에서 ‘ㄱ, ㄸ, ㅍ’은 관형형 어미 ‘-ㄴ’ 뒤에서 전청음이었던 것이 전탁음으로 바뀌어 실현되었다.²¹⁾

같은 판본 내에서 합용병서와 평음이 혼용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喜方寺本 : 구짓고(13b) 꾸지림물(16a)

龍珠寺本 : 꾸짓고(27a) 꾸지람은(32a)

喜方寺本에서는 ‘꾸짓-’과 ‘구짓-’을 혼용하였으나 龍珠寺本에서는 모두 ‘꾸짓-’으로만 표기되었다.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비교해 보면, 위의 ‘꾸짓-’의 경우처럼 평음이 경음화

18) 남광우 편(2011), 「고어사전」, 교학사, p.989.

우는 듯 쨍기는 듯 (해동가요), 문득 쨍기여 곶오더 (경신록언석31), 쨍길 빈 : 嘸 (아학편하3)

19) 이기문(1994 : p.196)에 의하면 ‘ㅍ’은 중세국어에서 표기되지 않고, 18세기말에 간행된 「倭語類解」에서부터 나타난다.

20) 김성규(1996), “중세국어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I」, 국립국어연구원, pp.17~18
에 보면, 경음계열이 국어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표기에서만 없어진 것이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ㅍ’이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ㅍ’은 ‘ㅍ, ㅍ, ㅍ’ 등과 같은 ‘ㅍ’계 합용병서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각자병서가 다시 사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1) 위의 책, p.17.

喜方寺本		龍珠寺本
뵈르코(2b)	→	뵈르며(4b)
뵈르디(8b)	→	뵈르디(15b)
셔르(13b)	→	셔로(27b)
도죽(15a)	→	도적(30a)

위의 예들에서 보면 喜方寺本에서 나타났던 ‘·’가 龍珠寺本에서는 제 2음절에서 ‘一’, ‘ㄱ’, ‘ㄴ’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변모양상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3. 종성 표기

15세기 訓民正音 본문은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지만 解例 終聲解는 종성을 사실상 8자 체계로 규정하였다.²²⁾ 즉, 음절 말에 ‘ㅂ, ㄷ, ㄱ, ㅅ, ㅁ, ㄴ, ㅇ, ㄹ’ 등 8가지 자음이 종성에 나타난다. 종성에서 ‘ㅅ’과 ‘ㄷ’이 변별성을 가지면서 음운론적 대립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초기부터 ‘ㅅ’과 ‘ㄷ’의 중화로 인한 변별적 기능의 상실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종성 ‘ㅅ’과 ‘ㄷ’의 혼기로 이어지고, 17세기를 거쳐 18세기까지 이어져 결국 7종성법이 나타나게 된다.²³⁾

종성 표기에서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喜方寺本은 8종성법을 따르고, 龍珠寺本은 7종성법을 따른다. 즉, 말음에서 喜方寺本은 ‘ㄷ’과 ‘ㅅ’이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龍珠寺本에서는 말음 ‘ㄷ’을 ‘ㅅ’으로 통일하여 쓰고 있다.

喜方寺本 ‘ㄷ’	龍珠寺本 ‘ㅅ’
뵈(4b)	뵈(8b)
뵈디(16a)	뵈기(31a)

22) 이기문(1994), 앞의 책, p.117.

23)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 :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18~20.

듣고(17a)	듯고(33b)
못ㅎ야(17b)	못ㅎ여(34a)
받줍고(19a)	밧아(40b)

위의 예를 통해 16세기까지는 ‘ㄷ’과 ‘ㅅ’이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18세기에는 변별적 기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즉, 喜方寺本에서는 ‘ㅂ, ㄷ, ㄱ, ㅅ, ㅁ, ㄴ, ㅇ(○), ㄹ’이 음절 말에 사용되었고, 龍珠寺本에서는 ‘ㅂ, ㄱ, ㅅ, ㅁ, ㄴ, ㅇ, ㄹ’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龍珠寺本에서는 음절 말에 위 7종성 외에 ‘ㅍ’이 사용된 예가 보인다. ‘깊혀(19b)’가 그것이다. 이는 龍珠寺本의 필자가 형태소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헌에서 나머지는 ‘깁혀’로 사용되고 있어 8종성법을 따르고 있다.

둘째, 龍珠寺本에서는 겹받침이 사용되었으나 喜方寺本에서는 겹받침이 사용되지 않았다.

龍珠寺本 : 넓지(3a), 여뽏(5b), 췌기(6a), 거뽏(44b)
 훗(31a), 넓으며(40a), 얹어(47b)

喜方寺本에서 특이한 점은 여뽏(3b)과 여뽏(10a)에서 ‘래’이 병서되지 않고 ‘ㄹ’과 ‘ㅂ’이 상하로 표기되어서 종성이 두 개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겹받침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8종성법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喜方寺本에서 ‘췌다’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의 경우 대체로 연철 표기 되면서 어간 ‘췌-’에 삼입모음 ‘오/우’가 개입되고 ‘ㅂ’이 탈락하여 ‘설위(희3b²⁴)’와 같이 표기되고 있다. 또 어간 ‘췌-’과 어미 ‘도다’가 만나 연철 표기 되면서 ‘설뽏다(희10a)’로 표기하고 있어 ‘췌-’에서 종성으로 ‘래’을 볼 수는 없다.

龍珠寺本에서 겹받침은 위의 용례와 같이 ‘래’과 ‘러’이 사용되었다.

24) 판본 구분을 위하여 喜方寺本은 ‘희’로, 龍珠寺本은 ‘용’으로 표시한다.

셋째, 喜方寺本에서는 ‘ㅇ’이 사용되었으나 龍珠寺本은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왕사성(1a), 스승(1b), 스승(1b), 공경(1b), 전성(2a), 이성(2b), 사향초고(2b), 단장하여(2b)

‘ㅇ’이 사용된 용례는 위의 예들뿐이다. 이처럼 ‘ㅇ’은 몇몇 어휘에서 나타나며, 喜方寺本의 처음 몇 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ㅇ’은 16세기에 종성에 국한하여 쓰이거나 ‘ㅇ’과 혼동되어 쓰였다. 17세기 문헌에 받침으로 쓰인 ‘ㅇ’의 예가 보이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ㅇ’에 합류되었다.²⁵⁾ 喜方寺本에서도 몇몇 어휘에서만 ‘ㅇ’을 종성으로 사용하였고, 거의 모든 종성에서 ‘ㅇ’이 사용되었다.

넷째 喜方寺本에서 ‘ㅅ’이나 ‘ㄱ’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화 하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 (ㄱ) 모던 업 진논(회10b)
- (ㄴ) 몽 몰라도(회16a), 몽 믈룬(회17a)
- (ㄷ) 즌디 립논 은(회8b)
- (ㄹ) 춤디 몬하교(회8a)

(ㄱ)은 음절말 자음 ‘ㅅ’이 후행하는 자음의 영향으로 비음화되어 ‘ㄴ’으로 표기 되었고, (ㄴ)은 음절말 자음 ‘ㄱ’이 ‘ㅇ’으로, (ㄷ)은 ‘ㄷ’이 ‘ㄹ’으로 표기된 예이다. 그런데 (ㄹ)의 경우에는 후행하는 어두 자음이 비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ㅅ’이 비음인 ‘ㄴ’으로 표기 되었다. 이는 喜方寺本의 필자가 소리 나는 음을 충실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연철 · 분철 표기

25) 이상녀(2002), “가례언해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제11호, 박이정, p.185

연철 표기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앞의 자음 곧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명사와 조사, 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어형의 표기에서 적용된다. 분철표기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경우에 체언이나 어간의 끝자음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연결하지 않고, 현대 정서법과 같이 분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기법은 16세기에 들면, 혼란과 변화가 일어나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이중으로 표기되는 일이 16세기 초반의 문헌부터 나타난다. 분철과 연철의 중복인 것인데, 이를 중철이라 한다. 근대국어 표기법은 명사의 어간과 조사를 분철하여 표기하려는 의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났지만,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뚜렷해진다.²⁶⁾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異本 모두에서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가 나타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철표기>

	喜方寺本	龍珠寺本
ㄱ받침	주근(2b), 머거셔(8a), 즈시글(9a), ...	
ㄴ받침	아라니과(1b), 녀이니(2b), 아라니(2b), 녀이논(2b, 3b), ...	
ㄷ받침		안즈매(20b)
ㄷ받침	쁘디(3b), ...	바다(32b)
ㄹ받침	더리(3a), 드르라(3b), 드리면(4a), ...	드르니(1a), 머리(3a), 아르미(3a), 기리(25b), ...
ㄴ받침	닐그며(3a), ...	불근(17b)
ㄹ받침	설쁘다(10a)	뵈바(11b)
ㅇ받침	사르미(1a), 모민(2b), 믈스미(3b), 나호매(3b), ...	어려오미(13a), 무셔오미(13b), 슬푸미(14b), 스랑ㅎ미(15a), ...
ㅂ받침	눈서븐(9b), 니브며(15a), ...	

26) 안병희·이광호(2009),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pp.40~46.

ㅂ받침	업스니라(3b), 업스며(7a), ...	업스니(13b), 업서(25b), ...
ㅅ받침	든거슬(8a), 지슨(23b), ...	이러트시(1a), 저슬(5b), 거시(8b), 마 슬(10a), 김오슬(12b), ...
:	:	:

<분철표기>

	喜方寺本	龍珠寺本
ㄱ받침	은덕을(22a), 디옥의(22b, 23b)	죽은(4b), 은덕은(6a), 즈식을(6b), 먹 여(16b), ...
ㄴ받침	은이라(7b), 세존이(24b)	아란이(1a), 세존아(2a), 두 분을(4a), 업산이라(10b), ...
ㄷ받침	불여(14b), 불아(19a)	뜰에논(6b), 눈물이(13b), 날에(14a), 밭이(17a), ...
ㅁ받침		일흠이라(1a), 남으로(2a), 몸을(2a), 사름이(2a), ...
ㅂ받침		도읍이라(1a), 계집의(4a), 범을 (27b), 넘어(29a), ...
ㅅ받침		맞아(25b), 곳으란(26a), 벗을(28a), ...

喜方寺本에서 연철 표기는 그 양이 너무 많아 몇 가지만 용례를 들어보았다. 16세기 후기에 간행된 喜方寺本에서는 연철 표기가 분철 표기에 비해 우세하다. 분철 표기에서 ‘ㄱ받침’과 ‘ㄴ받침’에서는 체언과 조사가 만났을 때 분철 표기가 되었다. ‘ㄷ받침’의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분철 표기되었다.

龍珠寺本에서는 연철 표기도 많이 나타나지만 분철 표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형태소를 분석하려는 문법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분철표기 외에 분철 표기에 철저히 치중한 나머지 과도 분철된 예들이 있다.

무덕이(3a), 길으고(5b), 먹음고(13b), 녀여(15a), 녀이미(16a), 금음(30b), 임의(32a), 실어곰(40a)

위의 용례들은 龍珠寺本의 분철의 예들 중 한 형태소 안에서의 자음까지 앞음절의 받침으로 표기하면서 과도분철이 된 것들이다.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에서 중철 표기된 예들도 찾을 수 있다.

먼저 喜方寺本에서 찾을 수 있는 중철 표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의 중철 표기>

옥괴(14b) 덕기(17a) 복글(22b) 디옥괴(24a, 24b) 덕고로(24b)

<‘ㄴ’의 중철 표기>

은나라(8a, 9a, 9b) 은니(8a, 9b) 은닐(17a, 18a, 18b, 19a, 19b, 20b, 21b, 22b, 24b)
얼운니(13b) 든니다가(14b) 스면너(23b) 슈미산닐(18a)
희운닐(18b) 죄인니로쇠이다(17b)

<‘ㄹ’의 중철 표기>

홀로미(7b) 말탈(13b)

<‘ㅁ’의 중철 표기>

꾸지럼물(16a)

喜方寺本의 중철표기는 대체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많이 보인다.

龍珠寺本에서 중철 표기된 예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쫓지(8b), 김프매(15a), 쫓츠물(20b), 좃차(30a), 꺄쳐저(30a)

쫓히(7a), 직희고(12a), 김혀(18a), 놓흔체(27b), 뚝뚝혀(28a), 갑흐리잇고(40a)

위 龍珠寺本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앞서 본 喜方寺本의 중철표기와는 차이가 있다. 喜方寺本의 중철 표기는 어간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에 한 번 더 나온 것이라면 龍珠寺本에서의 중철 표기는 재음소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음운의 비교

양 이본에서 보이는 음운은 표기의 보수성이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시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양 이본에 나타난 ‘·’음의 동요, 모음조화 붕괴현상, 원순모음화, ‘△’의 소실, 구개음화, 경음화, 격음화, ‘ㄱ’ 탈락 현상, 어중모음 간 ‘-르ㄴ-’ 현상을 비교해 보겠다.

1. ‘·’음의 동요

‘·’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뿐만 아니라 격조사와 용언의 어미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출현하는 빈도수가 다른 음소와 비교하여 아주 높은 모음이었다. ‘·’음이 근대국어에 와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음에 대한 소리 값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음은 ‘ㅏ’와 ‘ㅑ’의 간음 또는 ‘ㅓ’와 ‘ㅕ’의 간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는 중세국어 모음체계에서 가장 다양한 음운변화를 보이는 모음이라 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는 현대국어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 > ㅏ [a] · > ㅑ [i] · > ㅓ [ə]
· > ㅕ/ㅛ [u] · > ㅣ [i] · > [i], [e], [ɛ]²⁷⁾

‘·’의 소실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음의 소실기가 대략 17세기라고 보기도 하고, 1780년경에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라고도 한다. 「역어유해」가 간행된 숙종16년(1690)까지 100년간 ‘·’음 소리의 소실은 끝났다고도 하며, 음운 /·/음의 제 1단계소실은 16세기 후반에, 제 2단계 소실은 18세기 후반에 각각 완성되었다고도 한다.²⁸⁾ 이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는 17세기를 거

27) 백응진(1999), 「한국어 역사음운론」, 박이정, p.333.

28) 최홍렬(1990), 앞의 논문, p.35에서 이승녕, 허웅, 최현배, 이기문의 견해를 재인용한 것.

쳐 18세기이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喜方寺本에서는 대체로 ‘·’의 동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龍珠寺本에서는 ‘·’의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ㄱ) · > 一	ㅅ르코(2b) 가프리잇고(3b) 드르며(3b) 사르미(4a) ㄱ득ㅎ엿도다(7a) ㅅ르디(8b) ㄱ트야(10a) ㅅ술(15a) 노논듯ㅎ더니(17b) 갹프리잇고(24b)	ㅅ르며(4b) 가프리잇고(6a) 드르며(6b) 사름의(7b) ㄱ득ㅎ도다(13b) ㅅ르디(15b) ㄱ트니(19a) ㅅ을(30a) 노논듯ㅎ더니(34a) 가프리잇고(44a)
(ㄴ) · > ㄱ	서르(13b) 도르혀(13b) ㅎ르(24a)	서로(27b) 도로혀(28a) ㅎ로(43a)
(ㄷ) · > ㄷ	다솻(4b) 도죽(15a) 나지(4a) 나리(7b)	다섯(8a) 도적(30a) 나제(7a) 날에(14a)
(ㄹ) · > ㅅ	ㅅ람(14b)	바람(29b)

(ㄱ)은 ‘·’음이 ‘一’로 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는 비어두음절에서 ‘一’로 합류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르미 → 사름의’의 경우 조사 ‘의’가 ‘의’로 변하면서 연철 표기 되었던 것이 분철 표기되었음도 확인된다.

‘·’는 15세기부터 비어두음절에서 ‘ㄱ’로도 변하는 데 (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ㅂ’로 중화되는 음운변화 또한 (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직, 나릭’에 서도 조사였던 ‘이’가 ‘나제, 날에’의 ‘에’로 변화였는데 ‘날에’의 경우에는 ‘·’의 음운변화와 함께 분철 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은 ‘·’가 ‘ㅂ’로 중화된 예인데 어두음절에서 ‘·’가 소실되었다.

그런데 喜方寺本에서는 보이지 않던 ‘·’가 龍珠寺本에서 비어두음절에 나타나 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喜方寺本>

스승(1b)

여덟(3b)

쇠술위(24a)

<龍珠寺本>

스승(2a)

여덟(5b)

쇠수리(43a)

이상에서 ‘·’음의 동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음의 동요는 15세기에 비교적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를 흔들어 놓았다. 이 절에서 보인 용례들에서도 모음조화 의 붕괴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 모음조화 붕괴

알타이계 언어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진 모음조화는 한 단어의 내부나 어절 구 성 시에 상대적으로 성질이 가까운 모음끼리 서로 연결되려는 일종의 모음동화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한 단어 안에 양성모음 또는 음성모음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공존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중성모음은 어느 것과도 연 결될 수 있었다.²⁹⁾

양성모음 · ㅂ ㅅ

음성모음 ㅡ ㅈ ㅊ

29) 박병채(1989 : 151)는 중성모음 ‘이’는 양성모음과 중성모음의 대립에서 벗어나며, 현대국어와 달리 대개 양성모음과 어울린다고 하였다.

모음조화는 한 단어의 내부에서 또는 체언을 잇는 조사와 용언의 어간에서 일어난다. 한자어의 경우는 그 구성에서 애초 모음조화의 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실 이러한 대립을 가능케 하는 음운론적 자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양성으로 분류되는 모음들은 저모음 계열에 들고, 음성으로 분류되는 모음들은 고모음 계열에 든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³¹⁾

모음조화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엄격히 지켜졌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음이 창제되던 1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³²⁾ 모음조화의 파괴는 16세기 이후로 더욱 확산되는데, 한 단어 내부에서조차 원래 양성모음이었던 것이 음성모음화한 예를 곧잘 찾아볼 수 있다.³³⁾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모음 조화를 보이는 조사나 어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 원인은 ‘·’의 제1단계변화, 의도법 어미 ‘-오/우-’의 소멸, 문법 형태소의 단일화 등 음운론적·형태론적 변화들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 결과, 이분법적 대립에 기초한 모음체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모음조화의 파괴는 더욱 가속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⁴⁾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에서도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있는 양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30) 이기문(1994), 앞의 책, p140.

31) 김종훈 외(2008), 『한국어의 역사』, 집문당, p. 172.

이기문(1994 : 141)은 양성모음은 후설모음으로, 음성모음 전설모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32) 박병채(1989 : 151)는 15세기에 모음조화에 어긋나는 쓰임이 없지 않으나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16세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문(1994 : 141)은 15세기 중엽의 모음조화는 명사와 동사 어간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어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 ‘사람’(人)의 대격형에 ‘사랴물’과 ‘사랴물’, ‘낮-’의 활용형에 ‘니즈니’와 ‘니즈니’가 공존하였는데 이들이 모음조화 규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는 15세기 이전, 국어의 엄격한 모음조화 규칙에서는 중립모음만으로 된 어간은 음모음의 어미를 취했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33) 김종훈 외(2008), 위의 책, p.173.

34) 박병채(1989 : 152)는 이들의 변화는 대개 음성모음 쪽으로 이루어져, 이후 형식소에도 음성모음이 비교 우위를 보인다고 서술한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ㄱ) 스싱의(1b)	남으로(2a)
나의(2a)	뼈를(2a)
전싱의(2a)	스싱에(2b)
뼈를(2b)	아르미(3a)
남즈의(2b)	나의(3a)
이싱의(2b)	연지를(4b)
더릭(3a)	말숨을(6a)
스이에(3b)	아춤은(7a)
:	:
(ㄴ) 솔오되(1b)	거느려(2a)
나건디(2a)	헝헝더니(2a)
므겁고(3a)	민드러(4a)
가브여우니라(3b)	가브여오니라(4a)
빅여(4a)	빅르며(4b)
듯해도다(7a)	흔꼴갓트니(4b)
겔더니라(9b)	위혀여(6b)
혀여도(10b)	꺾득해도다(13b)
:	:

(ㄱ)은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 모음조화가 붕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고, (ㄴ)은 용언의 어간과 활용 어미 사이에서 붕괴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장에서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의 모음조화 붕괴의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喜方寺本에 비해서 龍珠寺本의 모음조화 붕괴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喜方寺本에서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예들도 찾을 수 있다.

절혀시느니잇고(1b), 모르놏도다(2a), 논호라(2b), 가프리잇고(3b), ……
 사르미(1a), 둘희(2b), 남즈논(2b), 므른디(8b), 눈서븐(9b), ……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喜方寺本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진 예들을 찾을 수 있

으나 양 이본 모두에서 모음조화 붕괴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龍珠寺本에서는 喜方寺本에 비해 모음조화 붕괴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비후설모음으로 평순모음인 ‘ㄱ’이 ‘口, 日, ㄲ’ 등 순음 아래에서 안정된 원순모음 ‘ㄱ’로 조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모음 변화에서 주목할 점으로, 중세국어에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었던 음절 ‘므, 브, 프’와 ‘무, 부, 푸’ 등의 대립이 없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대립에 의하여 각각 다른 어휘로 나뉘어졌던 단어들이 외형상으로는 동음이의어를 이루게 되었다. 원순모음화는 문헌상으로는 17세기 말에 간행된 「역어유해」(1690)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순음화는 17세기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³⁵⁾

우선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된 어휘들을 찾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ㄱ) 므겍고(2b)	무겍고(4a)
플 (4a)	폴(7a)
눈므리(7a)	눈몰이(13b, 44a)
슬폰(7b)	슬푸미(14b)
미여(9a)	뫼워(17a)
믈(17a)	물(33a)
그믈(17a)	그물(42a)
블(23b)	불(42a)
블쏘줄(23b)	불쑏(42a)

35) 안병희·이광호(2009), 앞의 책, pp.67~68

이 책에서는 ‘ㄱ > ㄱ’현상을 순음화라 명명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원순모음화로 명명한다.

박병채(1989 : 152)는 원순모음화가 15세기 문헌에서 ‘브르다>부르다, 폼다>품다, 어듭다>어둡다’ 등의 진행이 확인되지만 원순모음화가 근대국어에서 크게 활발해졌다고 본다.

백용진(1999 : 321)은 ‘ㄱ’의 원순화는 고립적으로 독자적인 음운 변화라기 보다는 ‘ㄱ’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ㄱ’나 ‘·’가 원순화되어 ‘口’나 ‘ㄱ’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불동희(23b)	불동희(42b)
(ㄴ) 무거운(7a)	무거운(25b)
벼람 불여(14b)	바람이 부러(29b)
붓그러(15b)	붓그러혀(31a)
(ㄷ) 브효(13a, 16b, 17a, 23b, 24a)	불효(33a)
	불효(27a, 32a, 41a, 43a)

(ㄱ)은 喜方寺本에서는 평순모음이던 것이 龍珠寺本에서는 원순모음화된 예들이다. (ㄴ)은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에서 원순모음화된 예들이다. 위의 예들을 통해 喜方寺本에 비해 龍珠寺本에서 원순모음화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喜方寺本에서 원순모음화가 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어 이미 16세기부터 원순모음화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ㄹ’이 중성에 첨가되는 표기양상을 보인다. ‘브효’는 ‘불효’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브효’는 「翻譯小學」(1518) 등에서, ‘불효’는 「釋譜詳節」(1449)과 「小學諺解」(1586) 등에서 발견된다. 喜方寺本에서는 ‘브효, 브효ㅎ느니’로, 南高寺本(1741)에서는 ‘불효ㅎ느니’로, 龍珠寺本에서는 ‘불효, 불효ㅎ느니’로 표기되었다. 龍珠寺本에서는 ‘불효’와 ‘불효’의 혼기양상도 보인다. 종합해보면, ‘불효’는 ‘불효’의 원순모음화로 볼 수 있다. 南高寺本과 龍珠寺本의 판각 시기가 약 50년 정도 차이 나는데, 南高寺本에서는 원순모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南高寺本이 언어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전의 판본을 복각하는 과정에서 보존적인 표기를 하였기 때문이다.³⁶⁾ 南高寺本에서의 ‘불효’가 이전 표기에 대한 보존성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면, 喜方寺本의 ‘브효’가 한자음에 충실하기 위한 표기인 ‘불효’로 변하였고, 龍珠寺本에서는 ‘불효’로 원순모음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龍珠寺本에서는 위의 예들 말고도 원순모음화 된 어휘들을 더 찾을 수 있다.

(ㄷ) 무르녹게(4b)	* 무르녹다 > 무로녹다
무로녹도다(17b)	

36) 최홍렬(1990), 앞의 논문, pp.48~49.

무루녹아(43a)	
푸러(6b)	* 풀다 > 풀다
무겁기(12b)	* 무겁다 > 무겁다
물드르니(19b)	* 물들다 > 물들다
푸른(17b)	* 푸르다 > 푸르다
붓고(19b)	* 붓다 > 붓다
폼어(29b)	* 폼다 > 폼다
저물게야(30b)	* 저물다 > 저물다
불너(34a)	* 부르다 > 부르다
붓고(42a)	* 붓다 > 붓다

- (口) 알푸물(25b)
알프물(37a, 42b)
괴로오물(26a, 45a)
피흐물(29a)
넉이물(29a)
싱각흐물(29b)
더위하물(30b)
피시물(30b)
목므르물(31b)

(ㄹ)과 (口)은 龍珠寺本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된 어휘들이다. (ㄹ)은 주로 용언의 어간들이 원순모음화 한 것들이고, (口)은 용언들이 명사형으로 바뀌고 조사와 결합한 어휘들이 연철표기 되는 과정 중에 원순모음화 된 것이다.

원순모음화가 활발했던 龍珠寺本에서 원순모음화 되지 않은 어휘들도 나타난다.

- (ㅂ) 눈물을(6a)
물(19b)
블순이흐며(27a)
더브러(29b)

허믈(40a)

베프고(49a)

믈너나다(49a)

(ㄱ) 그르믈(28a)

괴로오믈(43a)

즐거우믈(45a)

ㄱㄹ치시믈(47b)

(ㄴ)은 용언의 어간이나 체언에서, (ㄱ)은 용언의 명사형과 조사가 결합한 것이 연결 표기된 예이다. 앞서 보았던 (ㄱ)과 (ㄱ)을 비교해 보면 연결 표기 과정에서 모음 ‘ㅡ’가 ‘ㅓ’로 원순모음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와 같이 원순모음화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표기의 보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발음은 원순으로 나지만 표기는 평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4. ‘△’의 소실

‘△’은 『訓民正音』에 불청불탁(不淸不濁)의 반치음(半齒音)으로 규정되어 있다. 불청불탁음에는 ‘ㅇ, ㄴ, ㄱ, ㅁ, ㄷ, ㄹ’ 등이 속하므로 이는 유성음이면서, 반치음은 치음 ‘ㄱ, ㄷ, ㄹ’ 등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은 유성 치음 [z]의 발음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은 어두의 의성 의태어, 모음과 모음사이,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과 모음 사이, ‘ㄴ’과 모음 사이, ‘ㄱ’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난다. ‘△’은 16세기를 거치면서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였으나 16세기 중엽까지는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⁷⁾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살펴보면, 喜方寺本에서는 ‘△’이 몇몇 어휘에서에서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나 龍珠寺本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6세기이후에 ‘△’이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확인시켜주

37) 김성규(1996), 앞의 책, p.13, p.47.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喜方寺本에서 ‘△’이 사용된 예를 모두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ㅁ슴미(3b, 7b, 10a) ㅁ슴매(3b) ㅁ슴물(7a, 10b) ㅁ슴문(14b) ㅁ슴(17a)
가슴틱(7a) 가슴이(17b) ㄱ슴물(19b)
시름(7b)
어버시(13b)
아슴(14b)
ㅁ슬희(15a)
브스터(21a)
아스오니(17b)
엇데ㅎ야사(3b, 17b, 22a, 24b) 이슴계사(기17b) 이제사(기17b)

위 용례와 같이 ‘△’이 여러 어휘에서 사용되었으며, 강세조사 ‘-사’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용된 어휘들을 중심으로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비교해 보면 표기양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ㅁ슴미(7b)	ㅁ음이(14a)
가슴틱(7a)	가슴과(13b)
어버시(13b)	어버이(27a)
ㅁ슬희(15a)	ㅁ을을(30a)
이슴계사(17b)	이음ㅎ여(34a)
이제사(17b)	이제야(34a)
엇데ㅎ여사(17b)	엇지ㅎ여야(34b)

喜方寺本에서의 龍珠寺本에서는 ‘△’이 ‘ㅅ’과 ‘ㅇ’으로 표기되었으며 강세조사인 ‘-사’는 ‘-야’나 ‘-여’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喜方寺本에서 ‘△’의 혼란된 표기를 보여주는 예도 보인다. ‘어버시(회13b)’가

그 경우인데, 같은 판본인 喜方寺本 안에서 다른 형태인 ‘아버시(회17a)’로 쓰이고 있다. 이는 16세기에 ‘△’의 표기에 혼란으로 ‘△’와 ‘ㅅ’이 혼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⁸⁾

이미 16세기부터 ‘△’이 소실과 표기의 혼란은 喜方寺本을 통해 알 수 있다

한삼 > 한삼(2b)	저스오며 > 저소오며(3a)
스시에 > 스이에(3b)	벗사지논 > 벗사지논(17b)
눈즈스 > 눈즈스(19a)	

위 예들 중에서 ‘벗사지논 > 벗사지논’의 경우, 龍珠寺本에서는 ‘벗아지논(용34b)’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벗사디다 > 벗사디다 > 벗아지다’의 변화를 알 수 있다. 15세기 어형이던 ‘벗사디다’에서 ‘△’이 소실되면서 ‘ㅅ’과 ‘ㅇ’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구개음화

중세어의 자음체계가 현대 국어의 자음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음운 변화 중의 하나가 구개음화이다. 그래서 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그것은 중세국어 자음체계의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방언학적 측면에서 한 음운규칙의 발생과 그 규칙의 진화 경로에 따른 방언의 분화단계를 확인하는 데도 실로 긴요했던 것이다.³⁹⁾

구개음화란 ‘i’와 ‘j’에 선행하는 ‘ㄷ, ㅌ, ㅌ’이 ‘ㅈ, ㅊ, 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결국 모음에 의한 자음의 역행동화라 할 수 있다. 구개음화는 아주 규칙적이며, 음운변화를 겪어야 할 대상의 범위가 아주 넓다. 구개음화의 대상에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유어의 어간 중에 구개음화를 겪어야 할 어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사용 빈도수가 아주 잦은 문법어미도

38) 16세기에 『內訓』에도 ‘아버시’가 나타난다. 신중진(1996 : 224)은 ‘아버시’를 방언형이라 하였다. ‘여우’의 방언형으로 ‘여수, 여시, 야시, 애수, 예수’ 등이 있고, ‘무’의 방언형으로 ‘무시, 무수’ 등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시’를 방언형으로 본다.

39) 백용진(1999), 앞의 책, p.263

포함되어 있었다.

구개음화 현상은 ‘디->지-, 디새>지새, 엇디>엇지, 고디식>고지식, 동->중-, 티->치-, 덩시>접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방언마다 조금씩 시기를 달리하지만 구개음화를 겪지 않는 서북 방언과 함경북도 육진 방언의 일부 지역 방언을 제외한 모든 방언이 대체로 17세기 후반까지는 이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⁴⁰⁾ 남부방언에서 쓰이고 있는 ‘ㄱ>ㅈ, ㅋ>ㅊ, ㅎ>ㅅ’ 현상도 일종의 구개음화현상이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ㄱ) 데즈(1a) 부테(2a) 더럭(3a)	제즈(2a) 부체(3a) 절이라(5a)
(ㄴ) 혼땀흔(7a) 덩흔고(7b) ㄱ티(10b) 티며(13b) 티고(16b) 디내여도(19b)	혼침흔(13b) 정흔매(14b) ㄱ치(19b) 치며(27a) 치고(32a) 지내여도(37a)
(ㄷ) 좇디(13b) 드러오디(14a) 어긔여디고(14b) 닛디(14b) 잡디(18b) 벗사디논(17b)	좇지(27b) 도라오지(28b) 어긔여지면(29b) 니저벗리지(30a) 잡지(36a) 벗아지논(용34b)

(ㄱ)은 체언의 ‘디, 더, 티, 터’가 ‘지, 죠, 치, 처’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ㄴ)은 용언의 어간의 ‘디, 더, 티, 터’가 ‘지, 저, 치, 처’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ㄷ)은 문법 어미 ‘-디’가 ‘-지’로 변환된 것이다. (ㄷ)과 같이 문법 어미 ‘-디’가 ‘-지’로 변환

40) 전광현(1997), 앞의 책, p.36.

것은 사용 빈도수가 아주 잦은 것으로 18세기의 문헌을 17세기의 문헌과 비교하면 구개음화의 영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위의 예 외에도 龍珠寺本에서 구개음화된 어휘들을 찾을 수 있다.

직희고(12a)	* 덕히다>직히다
걸치지(12b)	* 걸티다>걸치다
평안치(25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문헌인 龍珠寺本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龍珠寺本의 모든 어휘들이 구개음화 된 것은 아니다.

똥ㅎ시니(15a), 똥싱(25a), 데즈(3a), 당성ㅎ매(27a), 당가(28b), 형테(30b), 억데ㅎ고(31a), 텃디(25b), 디내여도(38a), 무간디옥(41b)

龍珠寺本 내에서도 구개음화된 표현들과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다. ‘디내여도’의 경우 龍珠寺本에서 ‘지내여도’로도 쓰이고 있으며, ‘무간디옥’의 경우 註譯에 ‘디옥’이라 하지 않고 ‘지옥’이라고 표기하였다. 또, ‘평안티’와 ‘평안치’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구개음화가 확대되고 있었으나 표기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주로 한자어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喜方寺本에서는 ‘ㄷ’으로 쓰였던 것이 후대의 판본인 龍珠寺本에서는 ‘ㄷ’으로 표기되면서 구개음화가 역행된 예를 찾을 수 있다.

점점(희13b)

덤덤(용28a)

전 시대의 喜方寺本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으나 후대의 것인 龍珠寺本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구개음화는 방언에 따라 일어난 시기가 다른데, 위의 예들은 喜方寺本이 복각된 지역과 龍珠寺本이 복각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구개음화 현상은 喜方寺本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龍珠寺本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는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쳐 18세기로 오면서 구개음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어휘와 그렇지 못한 어휘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표기상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경음화

된소리는 중세국어의 단계에 와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¹⁾

15세기의 된소리는 그 표기하는 방법이 세 가지⁴²⁾였는데, 첫째가 각자병서이다. ‘갈 낄, 갈 떠, 흘 빼, 갈 찌긱, 밧글 쏘리’ 등인데 이들은 관형사형 어미 ‘ㄹ’ 아래에서 된소리가 각자병서로 표기된 것들이다. 15세기 중엽 「圓覺經諺解」(1465)를 전후로 하여 된소리 표기에 각자병서가 사라지고, 된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된소리 표기에 ‘ㅅ’이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ㅅ계 합용병서가 일반적인 된소리를 표기한 것이었다.⁴³⁾

된소리 표기의 두 번째 방법은 관형사 ‘ㄹ’뒤에 ‘ㅇ’을 표기하여 관형사 어미 ‘ㄹ’자체가 성문화되고 동시에 오는 평음의 폐쇄음이 된소리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나타냈다. ‘미드 거시니, 녀 사롭, 이시 저긱’ 등인데, 여기서 ‘ㅇ’은 ‘사이시옷’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된소리 표기의 세 번째 방법은 결속자음⁴⁴⁾ ‘ㅅ’을 사용한 것이다. ‘앉거늘, 부터긱, 깃거, 어엇비’ 등과 ‘부터찌, 잠싼, 기껴, 어여찌’ 등의 형태가 있다.

41) 김종훈 외(2008), 앞의 책, p.178.

42) 백응진(1999), 앞의 책, pp.15~17.을 정리한 것임.

43) 이기문(1994 : 123)은 ‘ㅅ, ㅆ, ㅅ’의 ‘ㅅ’을 ‘된시옷’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① ‘ㅅ’이 음가에 구애되지 않고 된소리와 관련이 있는 ‘사이시옷’으로 사용되었기 때문, ② 15세기 중엽의 표기법에서 모든 받침은 다음 음절의 두음이 모음일 때는 내려 썼는데 유독 ‘ㅅ’만은 예외였던 점, ③ 표기상의 ‘ㅅ’은 된소리였다는 점, ④ 각자병서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원각경 언해 이후 자취를 감춘 것은 된소리 표기가 단일화된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 ⑤ 격렬성을 띤 동작을 보다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어두움이 된소리가 된 예들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4) 백응진(1999), 위의 책, p.20.

결속자음이란 두 개의 인접한 형태소 또는 두 개의 명사를 복합 명사로 하나가 되게 묶을 때에 생기는 두 형태소 또는 명사 사이의 소리를 기록한 것으로 앞뒤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의 소리로 조음되었다. 흔히 ‘사잇소리’라고 한다.

첫째, 각자병서를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喜方寺本 : 따(9a) 싸흠하며(15a) 씨 날그며(22b)

龍珠寺本 : 쉼시느(11b) 쓴거슬(14b) 췌가식느(17b) 몹쓸(19b)

각자병서 표기로 喜方寺本에서는 ‘ㄸ, ㅍ’이, 龍珠寺本에서는 ‘ㅍ’이 사용되었다. 喜方寺本의 ‘ㄸ’은 앞서 기술했듯이 ‘ㄷ’의 오기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각자병서 ‘ㄸ’은 관형사형어미 ‘ㄹ’ 뒤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가 나타났던 「父母恩重經諺解」의 본문 내용은 ‘어미는 따 곧고(회9a)’이다. 관형사형 어미 ‘ㄹ’은 쓰이지 않았다. 앞서 기술했듯이 ‘따(地)’는 ‘ㅍ’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여러 학자들은 ㅅ계 합용병서를 된소리로 보고 있는 반면, ㄷ계 합용병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박병채(1989)는 ㄷ계 합용병서를 ㅅ계 합용병서와 함께 경음화 현상으로 보고 있다.⁴⁵⁾ 이기문(1994)은 ㅅ계 합용병서만을 된소리로 보고, ㄷ계 합용병서에서 ‘ㅍ’을 음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⁴⁶⁾ 본고에서는 ㄷ계 합용병서까지 경음화현상으로 보고 양 이본을 비교하겠다.

양 이본의 합용병서 표기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ㅍ	ㅍ (3b, 4b, 10a, 13b)	
ㅍ	ㅍ 것 (8a) ㅍ기디 (8a) ㅍ디 (15b) ㅍ다가 (16a)	-ㅍ (5b, 6a, 16a, 34b, 37a) ㅍ가식여 (18a, 26a) ㅍ 거슬 (26a) ㅍ여 (29a) ㅍ어 (29b) ㅍ호며 (30a) ㅍ슬 (31a) ㅍ가져 (31b)

45) 박병채(1989), 앞의 책, p.146.

46) 이기문(1994), 앞의 책, p.131.

		뿌러젓다가 (34a) 뿌며 (40a) 뿌실제 (42b)
ㅁ	뿌며 (14b)	뿌이고 (29b) 뿌저 (43a)
ㅅ	-씨 (1b) 쓰딴 (4a) 년숫 (9b) 잠판 (10b, 16b) 씨 (14b) 꾸지림 (16a) 불쏘줄 (23b) 씨여 (17b) -씨 (19a, 20b, 22a, 24b) 씨락 (24a)	-씨 (2a, 4a, 6a, 6b, 36b, 40a, 44a, 48a) 씨희 (7a) 깨치며 (11b) 씨쳐- (14a, 19a, 26b, 32b, 47b) 년숫 (17b) 씨리지 (26a) 꾸짓- (27a, 31a, 32a) 씨호물 (29a) 꾸지람 (32a) 씨어나 (34a) 씨뚫- (34a) -씨지 (35b) 불숫 (42a) 씨코 (39a, 42a) 씨꽃치 (42b)
ㅈ	씨 (2b) 쏘 (14b, 15a, 15b, 16b, 23b) 쏘해 (19b) 쏘죽시기 (16b)	쏘 (1a, 2a, 5a, 5b, 15a, 20b, 25b, 31a, 31b, 32a, 33a, 33b, 40a, 42b, 44a, 46b) 쏘 (2a, 16b, 18b, 29b, 33b, 34a, 42a) 쏘 (4a, 5b, 6a, 17a, 37a, 42b) 씨 (4a) 씨 (5b, 8b, 9b, 17a, 18b, 20b, 27b) 쏘 (5b, 18a, 19b, 26b, 32a, 32b) 씨러져 (7a) 씨글 (12b, 36a) 쏘로도다 (20b) 씨나- (20b, 45a) 쏘라가 (29b)

		떨치고 (31a) 쭈러져 (35b) 쪼러지- (41b, 47b)
ㅅ	ㅅ (1a, 1b, 2a, 2b, 3a, 3b, 14b, 21a, 23b) ㅅ디느니 (23b)	ㅅ (2b, 3a, 4a, 4b, 6a, 9a, 11b, 35b, 38b, 43a, 47b) ㅅㅅ (17b) ㅅ혀나여 (47a)
ㅈ		ㅈ긱지 (15a)

위 용례를 살펴보면, 喜方寺本에서 보다 龍珠寺本에서 합용병서의 어휘의 수와 빈도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적인 측면보다 각박한 삶과 복잡한 사회구조 등 사회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⁷⁾ 喜方寺本이 복각된 1592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이다.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사이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1636)이라는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난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경음화 현상을 부추기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형사형 어미 ‘ㄹ’뒤에 ‘ㅇ’을 표기하는 방식은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결속자음 ‘ㅅ’을 사용한 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喜方寺本 : 엇게(18a), 닷그라(22b)

龍珠寺本 : 앓기고(17a), 갓가온더(20b), 잇글고(26b), 맛당이(35a), 닷글거시니(40b), 어엇버(28a), 깃거햏야(49a)

(ㄴ) 喜方寺本 : 부터씨(1b), 년쑏(9b), 잠싼(10b), 불쑏줄(23b)

龍珠寺本 : 부터씨(2a, 6a), 년쑏(17b), 불쑏(42a)

47) 김종훈 외(2008), 앞의 책, p.179.

(ㄱ)은 뒤에 오는 평음이 된소리가 된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 (ㄴ)은 결속자음이 뒤에 오는 형태소의 어두 자음 앞에 겹쳐 쓰게 되어 그 어두 자음이 된소리임을 표기한 것이다.

이상에서 양 이본에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음화현상은 표기에서 각자병서나 합용병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이시옷 등을 사용하여 발음상에서 된소리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표기 현상은 양 이본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시대적, 사회적 흐름으로 인하여 전대의 것인 喜方寺本에 비하여 후대의 것인 龍珠寺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7. 격음화

중세국어에서는 특히 16세기 이후로 평음이던 무성자음의 유기음화 경향이 광범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는 소위 ㅎ곡용어에 속하는 어휘들도 있는데, 말음 ‘ㅎ’이 역방향으로 영향을 끼쳐 어두의 무성자음을 유기음으로 변화시키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런 유기음화는 초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성에서도 일어난다.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에서 나타나는 유기음화된 낱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喜方寺本	龍珠寺本
(ㄱ) 코(4b) 갈(19a)	코(8b) 칼(11b, 29a, 36b, 37b, 38b, 42b)
(ㄴ) 남녀코로(1a)	
(ㄷ) 엇테(1b) 병훈 툃호고(7a) 나코(7b) <u>나훈니</u> (7b)	엇지하야(2b) 상치(11b) 나코(13b) 나키롤(14b)

건설타흐니(7b)	사양치(15b)
구티(8b)	편키롤(16b)
편안케 흐고(8b)	구치(16b)
조티(9b)	조치(17b, 26a)
편티(10b)	평안티(19b)
아니코(13b, 15a)	<u>아니흐며</u> (27b)
<u>아니흐눗다</u> (19b)	아니토다(19b)
화동티(13b)	순치(28a)
조심티(14b)	슬코(42b)
상심케(15a)	
저티(16a)	

어두음이 평음이던 것이 유기음화 된 것은 (ㄱ)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와 칼’ 뿐이다. ‘코’는 ㅎ곡용어로 ‘고ㅎ’이던 것이 ‘코’로 변환 것⁴⁸⁾인데,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에서 유기음으로 나타난다. ‘칼’의 경우에는 喜方寺本에서는 ‘갈’로 표기된 데 반해 龍珠寺本에서는 ‘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칼’은 ‘코’와 마찬가지로 ㅎ곡용어이던 것이 격음화한 것이다.

(ㄴ)의 ‘남녀코로’는 ‘남녱’이 ‘남녱’으로 격음화되었던 것이 喜方寺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에 대해 최홍렬(1990 : 41)은 남고사본에 ‘남녱코로’로 나타난 것을 ㅎ곡용어가 격음화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남녱’은 ㅎ곡용어가 아니므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ㄷ)의 격음화 현상은 음운 축약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선행하는 ‘ㅎ’과 후행하는 무성 자음 ‘ㄱ, ㄷ, ㅂ, ㅈ’이 결합하면 축약을 일으켜 ‘ㅋ, ㅌ, ㅍ, ㅊ’의 유기음으로 변환 것이다. 이런 어중 격음화 현상은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 축약에 의한 예들은 엄밀히 말해 격음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은 격음화라고 보기보다는 자음동화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¹⁾

48) 복각 시기가 회방사보다 40년 정도 앞선 松廣寺本(1553)에서는 ‘고’로 표기되어 있다.

여섯 드리면 회티 아기 눈과 귀와 고와 입과 혀와 뜯과 여느니라

49) 松廣寺本(1553)에서는 ‘남녀코로’로 표기되어 있다.

50) 이경희(2006 : 25)도 최홍렬의 견해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51) 김종훈 외(2008), 앞의 책, pp.176~178에서는 ‘ㅎ’의 영향으로 ‘ㄱ’이 ‘ㅋ’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자음동화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양 이본에 나타나는 격음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양 이본 모두에서 격음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주로 음운축약에 의해 무성자음이 격음으로 변하는 자음동화가 많이 일어났다.

8. ‘ㄱ’ 탈락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중세국어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ㄹ’, ‘ㄱ’, ‘ㅎ’의 탈락이다.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異本에서는 주로 ‘ㄱ’의 탈락현상을 보인다.⁵²⁾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의 형태소가 ‘ㄹ’이나 ‘ㅣ’모음일 경우 후행하는 ‘ㄱ’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보인다. ‘늘개>늘애’와 같이 체언 안에서나 체언의 공동격어미 ‘물과>물와’에서처럼 ‘ㄱ’이 탈락하였다. 또 ‘굴외거늘>굴외어늘’이나 ‘알고>알오’처럼 용언의 활용어미에서 ‘ㄱ’음이 탈락하였다.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이본을 살펴보면,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이는 禧方寺本에서는 ‘ㄱ’이 탈락하고 있으나 근대국어의 특징을 보이는 龍珠寺本에서는 ‘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ㅣ’ 아래 ‘ㄱ’ 탈락 >

웃듬 데지오(2a)

나의 하나비어나 부피어나 흘시(2a)

* 나의 응죄어나(용3a)

남즈의 쌌는 희오(2b)

* 스나희 쌌면 희고(용4a)

한삼 넙고 씩 씩오(2b)

쌌 희오 므겍고(3a)

쁘디 하전되오(3b)

사오나이 되오(9b)

집도 여희오(14a)

엇게에 가르 메오(18a)

52) 전광현(1996 : 37)은 이 현상을 ‘ㄱ’의 유성 후음화라고 한다.

< ‘ㄱ’ 아래 ‘ㄱ’ 탈락 >

모민 줄 알으(2b)

* 몸인 줄로 알고(용4a)

모민 줄 알어니와(2b)

* 몸으로 알녀니와(용4b)

위의 예들은 모두 喜方寺本에서 찾은 ‘ㄱ’탈락 현상이다. 龍珠寺本의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면, 喜方寺本에서는 ‘ㄱ’이 탈락하지만 龍珠寺本에서는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ㄱ’탈락현상과 같은 표기가 龍珠寺本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옹죄어나’가 그것인데 당시의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옹죄거나’가 맞는 표기일 것이다. 이를 통해 ‘ㄱ’탈락은 중세국어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龍珠寺本에서는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ㄱ’탈락형과 ‘ㄱ’유지형이 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기는 ‘알녀니와’이다. 이 표기도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면 ‘알거니와’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 표기는 ‘알어니와 ~ 알러니와’와 같이 모음 간 ‘-ㄹㅇ-’의 표기가 16세기 말부터 ‘-ㄹㄹ-’로 나타나다가 17세기이후부터 ‘-ㄹㄴ-’으로 표기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ㄹㄴ-’ 표기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겠다.

9. 어중 모음 간 ‘-ㄹㄴ-’ 표기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발견되는 음운론적 특징으로 어중 모음 간 ‘-ㄹㄴ-’표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의 표기는 중세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므로 17세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5·16세기의 후기 중세 국어에서 ‘오ㄹ-, 다ㄹ-, 흐ㄹ-’ 등은 어미 ‘-아’가 결합되면 ‘올아, 달아, 흘러’와 같이 표기상 ‘-ㄹㅇ-’, ‘-ㄹㄹ-’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ㄹㅇ-’의 경우 16세기 말부터 ‘-ㄹㄹ-’의 표기법을 쓴 용례가 드물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올아~올라’, ‘달아~달라’의 등장은 ‘-ㄹ/ㄹ-’어간의 특수성에 의한 표기의 구별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ㄹㄹ-’의 표기가 17세기에 그대로 유지·확대되면서 ‘-ㄹㄴ-’표기와 혼기되기 시작하였다.⁵³⁾

어중 모음간 ‘-르ㄴ-’ 표기는 근대국어 시기에 놓이는 龍珠寺本에서만 찾을 수 있다.

(ㄱ) 알녀니와(4b), 알나흐시느노(4b) * 엇테 알리잇가(기2b), 알오미(용31b)

열니느니(8b), 열니이도다(12b), 열니이고(14a)

홀너내고(5b), 홀너(10b, 25b, 37a, 47a), 홀니도다(18b), 홀너(34a)

길너 내여(27a)

결니여(28b, 33a), 결니이여(29a)

놀니여(29b)

애들니이고(32b) *애드라흐며(기17a)

들니인 듯흐야(33a)

불너(34a)

질너(38b)

(ㄴ) 일만 놀노(11b)

모든 결네와(28a)

겨레들노(29b)

칼노뼈(37a) * 칼로(기19b), 칼로(용47a)

칼놀노(37b), 칼놀과(38b), 칼놀이(42b)

그물노(47a) * 그물로(기23b)

(ㄷ) 진실노(18b) * 진실로(기10a)

실노(18b, 19b)

일노 말피아마(28b), 일노 인흐여(29a), 일노 조차(31a)

홀노(31a) * 홀로(용31a)

(ㄱ)은 용언에 활용어미들이 결합하면서, (ㄴ)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ㄷ)은 수식언 내에서 ‘-르ㄴ-’표기가 된 것들이다.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르ㄴ-’의 표기가 대다수지만 龍珠寺本 내에서도 ‘-르ㅇ-’이나 ‘-르르-’의 표기가 보인다. ‘-르ㄴ-’과 ‘-르ㅇ-’, ‘-르르-’이 혼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3) 전광현(1996), 앞의 책, p.17.

IV. 문법의 비교

이 장에서는 양 이본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모든 문법 현상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여러 문법 현상 중에서 조사와 어미에 국한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1. 조사

격조사도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⁵⁴⁾

주격 조사는 체언이 주어가 되게 하는 격조사이다. 중세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선행 체언이 자음이면 ‘-이’, 이나 ㅣ(y)모음이면 ‘Ø’, 그 밖의 모음이면 ‘-ㅣ’형태로 나타난다. 근대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 -ㅣ, -가’ 등이 있다. ‘이’는 중세국어에서처럼 체언 말음이 자음이거나 비이계 모음인 경우에 쓰였다. ‘ㅣ’는 그 분포가 다양해져 체언 말음이 자음⁵⁵⁾이거나 모음인 경우 모두에 쓰였다. ‘가’는 체언 말음이 모음인 경우에 사용되었다.

(ㄱ) 이

喜方寺本 : 대중이 부터끼 슬오되(1b)

아라니 므스매 설위 울며 슬오되(3b)

오장이 다 여럿도다(7b)

龍珠寺本 : 여러 사름이 공경호느니(2b)

54) 구분관(1996), “중세국어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 : 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68~76과 류성기(1997), “근대국어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2 :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68~76을 참조하였다.

55) 류성기(1997), 위의 책, p69에서 ‘-ㅣ’가 체언 말음이 자음인 경우에 쓰인 예로 ‘酉伯ㅣ 이제 괴외호시니(두중 17:1), 禮ㅣ 이시면(논해 3:21)’를 들고 있다. 『父母恩重經諺解』의 양 이본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없다.

아란이 부쳐피 술와 말슴호디(4a)

계집이 세상에 이실제(4a)

(ㄴ) ㅁ

喜方寺本 : 일시에 부테 왕사성의 데즈 삼만팔천 드리고 겨시더니(1a)

부되 ㄱ르치고 얼운니 뒤덥거든(13b)

데지 다 부터의 니르시는 부모 은놀 들고(17a)

龍珠寺本 : 부체 아란드려 고희디(3a)

즈되 그더를 낫는 날에(14a)

즈되 주리물 스양치 아니호도다(15b)

(ㄷ) ㅅ

喜方寺本 : 어미 즈식 비여(3b)

龍珠寺本 : 어미 즈식을 비여실 제(6b)

주격 조사가 사용된 예를 각각 찾아보았다. 喜方寺本은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이는 문헌이고, 龍珠寺本은 근대국어의 특징을 보이는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주격조사가 사용된 양상은 비슷하다. 근대국어에서 보였던 주격조사 ‘가’는 龍珠寺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보격 조사는 체언이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이, -ㅣ, ㅅ’로 각 형태가 나타나는 조건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모두 주격조사와 동일하다. 다만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드외- / 되-’, ‘아니-’ 앞에서 나타난다.

(ㄷ) 이 : 사름의 형상이 되느니라(용7b)

눈이 혼 정이 되고 귀 두 정이 되고 꾀 세 정이 되고(용8b)

어미 티 비연지 열 들이 되매(용11a)

죽어 귀신이 되야(용30a)

(ㄷ) ㅅ : 일즉 사름 되기를 원호다가(용27a)

(ㄷ) ㅣ : 머리 혼 꾀 되고 두 풀이 세 꾀 되고 두 무릅히 다솟 꾀 되느니라(용8a)

꾀흘너 하쉬 되어도(용47a)

(ㄱ) 가 : 형태에게 누가 되고(용30b)

보격조사는 龍珠寺本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ㄱ)의 경우 보격 조사로 ‘가’가 나타났다. 이경희(2006 : 31)는 이를 주격조사로 보았으나 ‘되다’ 앞에 나왔으므로 보격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술격조사는 체언이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 쓰인 서술격 조사는 ‘-이라, -이 라, -라’가 쓰였다. 이 조사는 ‘-이고, -이니’ 처럼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조사로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정사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접미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⁵⁶⁾ 본고에서는 서술격 조사라 한다.

喜方寺本 : 시름 니즌 <u>은이라</u> (7b)	우리는 이제 <u>죄인니라</u> (22a)
龍珠寺本 : 즈익흔 <u>아비시라</u> (2b)	웃듬 <u>데지라</u> (3a)
삼보는 부처와 법과 <u>둘이라</u> (5b)	엇던 거시 다섯 <u>죄라</u> (8a)
친이 나흔 <u>즌식이라</u> (17a)	기픈 <u>죄인이라</u> (34a)

喜方寺本에서는 서술격조사가 많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龍珠寺本에서는 서술격 조사를 다수 찾을 수 있다. 龍珠寺本에서 나타나는 서술격조사의 형태도 ‘-이라, -라, -이 라’가 모두 나타난다. 특히 한자어에 대한 註譯들은 모두 서술격조사 ‘-이라’와 ‘-라’가 사용되었다.

목적격 조사는 체언이 목적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형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가 같다. 목적격 조사의 형태는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여부와 선행 체언의 모음과의 모음조화에 따라 ‘-을/을, -를/를, -르’의 이형태가 있었다. 현대국어에서는 ‘·’의 소멸로 ‘-을, -를, -르’만 남아 있다.

喜方寺本 : 이 <u>써를</u> 들희 논호라(2b)	설운 <u>므스를</u> 머굼고(7a)
-------------------------------	-----------------------

56) 류성기(1997), “근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70.

둔거슬 토햐야 머기니(8a) 친헌 즈시글 나흐니(9a)

은날 가팍미 어럽도다(10b)

龍珠寺本 : 흔 무덕이 므론 쌌 가져 논화(4a)

쥬사와 연지를 무르녹게 브르며(4b)

가람에 드러 강을 듯고(5a)

흔 번 아희를 나흘제(5b)

마시는 마슬 아니 먹느니(10a)

괴로움을 밧는 은혜니(13a)

喜方寺本과 龍珠寺本 모두에서 목적격 조사 ‘-을/을, -를/를’을 찾을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체언 말음이 양성이면 ‘-을/를’이 쓰이고, 음성이면 ‘-을/를’이 쓰였으나 양 이본 모두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형격 조사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 쓰여 두 체언을 보다 큰 구로 묶어 주는 격조사이다.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의, -의, -스’이 주로 쓰였는데, 대체로 유정 체언의 비존칭에 ‘-의/의’, 유정 체언의 존칭과 무정체언에 ‘-스’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근대 국어에서는 모음조화나 존칭, 비존칭 및 유·무정 체언에 관계없이 ‘-의’가 사용되었다.

喜方寺本 : 나의 하나비어나(2a)

남즈의 쌌는, 녀이니 쌌는(2b)

일야의 므스미(10a)

느민 씨에 감겨(14b)

얼우니 꾸지럼물(16a)

브효의 죄도 그지업스니라(17a)

부터의 니르시논(17a) ...

龍珠寺本 : 나의 옹죄어나(3a)

계집의 쌌면(4a)

사름의 형상이(7b)

사름의 씨호물 넙어(29a)

상과 자리의 뫼검과 흙을(31a)

어룬의 꾸지람은(32a)

부쳐의 말숨 흐는 바(33b) ...

중세국어에서 쓰였던 관형격 조사 ‘-스’은 喜方寺本에서 쓰이지 않았다. 다만 ‘-의’와 ‘-의’는 같이 사용되었는데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관형격 조사는 모두 ‘-의’로만 사용되었다.

부사격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부사어를 만들어 주는 격조사이다. 부사격은

비교의 부사격 조사는 중세국어에서 ‘-와/과, -와로/과로, -이, -애/에’ 등이 쓰이고, 근대국어에서는 ‘-에, -와, -하고, -의게, -에서’ 등이 쓰였다. 喜方寺本에서는 ‘-와/과’가, 龍珠寺本에서는 ‘-와/과, -에서’가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호격조사는 호칭적 기능을 가지는 격조사로, 중세국어에서는 선행하는 체언의 높임 자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존칭에는 ‘-하’가 평칭에는 ‘-아’가 사용되었는데, 이런 형태는 전기근대국어까지 존속되다가 후기로 가면 극존칭에는 ‘-이시여’ 평칭에는 ‘-아’나 ‘-야’로 쓰였다.

喜方寺本 : 세존히 삼계에 스승이시고(1b)

세존하 엇데호여사 부모의 은늘 갑소오리잇고(17b)

龍珠寺本 : 세존아 여리는 삼계에 큰 스승이오(2a)

세존아 우리들이 이제 이 기픈 죄인이라(40a)

喜方寺本에서는 호격조사로 ‘세존하’와 같이 ‘-하’가 사용되었으나 龍珠寺本에서는 ‘세존아’와 같이 ‘-아’로 사용되었다. 喜方寺本에 ‘세존히(회1b)’가 나타나는데 이는 ‘세존하’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조사로 공동격 조사라고도 한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모두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 ‘-와’를, 자음으로 끝나면 ‘-과’를 사용하였다.

喜方寺本 : 아라니과 대중이(1b)

어찌 은과 덕과를(3b)

머리와 두 엇게와 두 무릅과 이느니라(4b)

아기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혀와 뺨과 여느니라(4b)

말숨과 형시리 서재여(13b)

쇠적곳과 쇠마치와 한도갈히(23b)

龍珠寺本 : 아란과 모든 사름이(2a)

2. 어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어미도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선어말 어미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제의 선어말 어미, 서법의 선어말 어미, 의도의 선어말어미 등이 있는데 의도의 선어말어미는 근대국어에서 소멸되었다.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눌 수 있다.⁵⁸⁾

먼저, 선어말 어미부터 살펴보면, 중세국어에서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주체높임은 ‘-시-’, 객체 높임은 ‘-습(줍, 습)-’, 상대 높임은 평서문에서는 ‘-이-’, 의문문에서는 ‘-잇-’이 쓰인다.

(ㄱ) 주체높임

喜方寺本 : 겨시더니(1a), 가시다가(1a), 절히시거늘(1a) 스승이시고(1b),

龍珠寺本 : 아비시라(2b), 절히시느니잇고(2b), 알나히시느뇨(4b), 녀이시고(34b),

(ㄴ) 상대높임

喜方寺本 : 절히시느니잇고(1b), 알리잇가(2b), 가프리잇고(3b), 하여인다(17b), 갑스오리잇고(17b), 갑스오리잇고(22a), …

龍珠寺本 : 절히시느니잇고(2b), 가프리잇고(6a), 갑히리잇고(40a), …

양 이본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았다. 「父母恩重經諺解」는 아란과 부처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아란이 부처에게 질문을 할 때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나타난다.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살펴보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느-’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에는 ‘-리-’,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는 ‘-더-’가 있다.

58) 구본관(1996), 앞의 책, pp.83~92와 류성기(1997), 앞의 책, pp.80~88을 참고하였다.

(ㄷ) 현재 시제

喜方寺本 : 절^ㅎ시^느니^잇고(1b), 절^ㅎ노^라(2a), 스러디^느니^라(4a), 이^느니(4b), ...

龍珠寺本 : 공경^ㅎ느^니(2b), 레^ㅎ노^라(3a), 알나^ㅎ시^느노(4b), 마시^느니(5b), ...

(ㄹ) 미래 시제

喜方寺本 : 날오^리라(3b), 못^ㅎ리^라(18b)

龍珠寺本 : 니르^리라(6b)

(ㄱ) 회상 시제

喜方寺本 : 겨시^던니(1a)

龍珠寺本 : 흥^ㅎ던^니(2a)

중세국어의 선어말 어미 중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의도의 선어말 어미이다. 의도의 선어말 어미는 ‘-오/우-’가 있다. 의도의 선어말 어미를 喜方寺本의 몇몇 어휘에서 찾을 수 있다.

저소^오며(3a), 감소^오리^잇고(17b), 갑스^오리^잇고(22a)

다음으로 종결어미를 살펴보면, 종결어미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父母恩重經諺解」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종결어미만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인데 선어말어미 ‘-니-, -리-, -더-, -오-, -과-’다음에는 ‘-라’로 교체된다.

(ㄷ) -다

喜方寺本 : 모^르닛^도다(2a), 님^당ㅎ^도다(7a), 가^득ㅎ^엇도^다(7a), 여^럿도^다(7b), ...

龍珠寺本 : 무^덧도^다(12b)

(ㄸ) -라

喜方寺本 : 절^ㅎ노^라(2a), 가^브여^우니^라(2b), 업^스니^라(3b), ㄱ^ㅌ니^라(4a), ...

龍珠寺本 : 레^ㅎ노^라(3a), 가^브여^오니^라(4a), 신^고ㅎ^느니^라(6b), 가^느니^라(7a), ㄱ^ㅌ니^라(7a), 되^느니^라(7b), 자^르느^니라(9b), 잇^느니^라(11b)

양 이본에서 평서형 종결어미로 ‘-다’와 ‘-라’가 사용되었다.

중세국어에서 의문형 종결어미는 상대 높임의 등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관정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이나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난다. 주로 관정 의문문에서는 ‘-가’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가 사용되었다. 근대국어에서는 주로 ‘-냐’로 쓰였고, ‘-가’와 ‘-고’는 변별적 사용이 파괴되고 혼용되었다.

(ㅇ) -고

喜方寺本 : 절^ㅎ시^느니^잇고(1b), 가^프리^잇고(3b), 갑^소오^리잇^고(17b), 갑^소오^리잇^고(22a), 갑^프리^잇고(24b)

龍珠寺本 : 절^ㅎ시^느니^잇고(2b), 가^프리^잇고(6a), 갑^흐리^잇고(40a), 가^지리^잇고(48a)

(ㅈ) -가

喜方寺本 : 알^리잇^가(2b)

(ㄴ) -뇨

龍珠寺本 : 알^나ㅎ^시느^뇨(4b)

양 이본 모두 대체로 의문형 종결어미로 ‘-고’를 사용하였다. 喜方寺本에서는 ‘-가’가 나타나고, 龍珠寺本에서는 ‘-뇨’가 나타난다.

명령형 종결어미는 경어법에 따라 ㅎ라체, ㅎ야씨체, ㅎ쇼셔체로 구분할 수 있다. 명령의 형성이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형태가 ‘-라’이고,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아씨, -쇼셔’가 있다. 근대국어에 쓰인 명령형 어미는 ㅎ라체와 ㅎ쇼셔체에서는 ‘-라, -쇼셔’가 사용되었으나 ‘-아씨’는 ‘-소’로 바뀐다.

喜方寺本 : ㄴ^호라(2b), 드^르라(3b), 닷^그라(22b), 일^우라(24b),

龍珠寺本 : 드르라(6b), 가질지니라(48b)

양 이본에서 명령형 어미는 모두 ‘-라’가 사용되었다.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 대등적 연결 어미는 ‘-고, -며, -나, -거나’ 등이, 종속적 연결어미는 ‘-니, -면, -고져’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ㄱ) 대등적 연결어미

喜方寺本 : 삼계예 스승이시고 스승의 아비시니(1b)

나의 옷듬 데지오 집 나건디 오라도(2a)

남즈의 빼는 희오 뜨겁고 녀이니 빼는 검고 가빅여우니라(2b)

더러 가 경도 널그면 부터도 저소오며 넘블도 흘쇠 빼 희오 뜨겁고(3a)

무거운 병헌 텃고 날마다 혼툼헌 듯고도다(7a) …

龍珠寺本 : 만일이 스나희 빼면 희고 또 무겁고 만일이 계집의 빼면 검고 또 가브여 오니라(4a)

경을 외오며 삼보에 네하야 절고 부터의 일흠즈를 외오느니(5b)

아들을 나호며 쌀을 길고 한 번 아희를 나흘제(5b)

똥헌 병고 날마다 혼침헌 듯고도다(13b) …

(ㄷ) 종속적 연결어미

喜方寺本 : 스승의 아비시니 사름마다 공경고거든(1b)

비여 열 들 디나니 나홀 시 넘당고도다(7a)

나코 아기 건실타니 깃브미 더욱 비고도다(7b)

스랑이 똥니 정을 춤디 못고(8a)

고온 양지 사오나이되오 싯노라니 반룡이 손고도다(기9b) …

龍珠寺本 : 만일이 효도롭고 순헌 즈식이면 주먹을 바치고 손바닥을 함고여(11b)

만일이 다숫 가지 거스리는 즈식이면 어미 포티를 깨치며(11b)

스랑고미 똥고매 정이 춤기 어렵고(15a)

옥얼골이 깃거지니 뺏가고여 반룡이 상고도다(18a) …

양 이본에서 보이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살펴보았다. 대등적 연결어미에서는 양 이본 모두 ‘-고’와 ‘-며’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종속적 연결어미는 喜方寺本에서는 주로 ‘-니’가 사용되었고, 龍珠寺本에서는 ‘-면’, ‘-니’ 등이 나타났다.

전성어미에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형 전성 어미로 나뉜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모두 ‘-ㄴ, -ㄹ’이 있다. 명사형 전성 어미에서는 중세국어는 ‘-옵/옵’과 ‘-기’가 있고, 근대국어는 ‘-ㄱ, -기’가 있다.

(표) 명사형 전성 어미

喜方寺本 : 편안호물(8b), 피셔시미(15a), 노로미(14b), 머기물(16a)

龍珠寺本 : 깃브기(14b), 울기와(19a)

아르미(3a), 주리물(15b), 목 므르물(16a), 고으미(17b), 녀이물(29a), 붓그
러오물(31b), 두릅이(32a)

(ㅎ) 관형사형 전성 어미

喜方寺本 : 얼원 것(4a), 슬픈 므슴미(7b), 뿐 것(8a), 단 것(8a), 꺾븐 이물(10b), 촌
더(10b), 모딘 사르물(13b), 다론 골(16b), …

龍珠寺本: 므론 싸(2a), 영권 타락(7a), 쓴 거슬(14b), 단 거슬(14b), 므론 더(15b), 저
존 더(15b), 몹쓸 업(19a), …

喜方寺本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ㄱ’만이 사용되었다. 龍珠寺本에서도 ‘-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주로 ‘-ㄱ’이 나타나고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보면, 喜方寺本에서는 모두 ‘-ㄴ’만을 사용하고 있고, 龍珠寺本에서는 ‘-ㄹ’이 나타나긴 하나 드물고, 주로 ‘-ㄴ’을 쓰고 있다.

V. 어휘의 비교

이 장에서는 양 이본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본다. 한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은 고유어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쪽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다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으로, 서로 다른 고유어로 언해하였거나 어형이 달라진 어휘들은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으로, 서로 다른 한자어로 언해하였으면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양 이본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의미 변화나 어형변화들을 살펴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1.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1) 가다 : 행(行)하다

남녀코로 가시다가(회1a) : 남으로 행히더니(용2a)

즈시기 나갓거든(회10a) : 먼니 행히매(용18a)

즈시기 머리 나가면(회10b) : 먼니 행히여(용19b)

‘往’과 ‘行’을 喜方寺本에서는 ‘가다, 나가다’로 龍珠寺本에서는 ‘행(行)하다’로 언해한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향하다’와 ‘외출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2) 니르다 : 고(告)하다

부체 아란드려 니르샤디(회2a,b) : 부체 아란드려 고히디(용3a,4a)

부체 아란드려 니르샤디(회3a,23b) : 부체 아란의게 고히디(용5a,41a)

부체 아란드려 니르샤디(회3b) : 부체 아란찌 고히디(용6b)

대중드려 니르샤디(회17b) : 여러 사름드려 고히디(용35a)

‘니르샤디’는 ‘이르다, 말하다’로 풀이되는 말로 ‘告’를 언해한 것이다. ‘니르샤디’와 ‘고(告)흐디’의 대응은 양 이본에서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다.

龍珠寺本에서의 한자어인 ‘고흐디’와 대응하는 어휘로 喜方寺本에서 ‘닐오디’와 ‘솔오디’ 찾을 수 있다.

권당드려 닐오디(회7a) : 친족의게 고흐니(용13b)

세존씨 솔오디(회24b) : 여리씨 고흐디(용44a)

‘닐오디’의 기본형은 ‘닐오다’이며 ‘니르다’와 마찬가지로 ‘이르다, 말해주다’로 풀이할 수 있다. ‘솔오디’의 기본형은 ‘솔다’로 ‘사뢰다, 여쭙다’의 뜻을 가진다.

(3) 옷듬 : 상족(上足)

네 비록 나의 옷듬데지오(회2a) : 네 비록 이 나의 상족데지나(용3a)

‘上足’을 언해하여 喜方寺本에서는 ‘옷듬’이라고 하였다. 본디 ‘상족(上足)’이란 함은 ‘불교에서 스승의 대를 이을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父母恩重經』에서 ‘上足弟子’로 표기된 것을 喜方寺本에서는 ‘옷듬 데즈’로,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상족데즈’로 표기하였다.

‘옷듬’은 중세국어에서 ‘최고, 나무줄기, 밑바탕, 실체, 본령’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 이들 의미는 모두 ‘사물의 으뜸’을 나타낸다. 이후 17세기에는 ‘최고, 나무줄기, 밑바탕’의 의미로만 쓰여 의미가 축소된 것이 18세기에는 더욱 의미가 축소되어 ‘최고’와 ‘밑바탕’의 뜻으로만 쓰였다. 현재에는 ‘최고, 근본’의 뜻으로만 쓰인다.⁵⁹⁾ 위 예에서 보이는 ‘옷듬’은 ‘최고’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4) 집 나가다 : 출가(出家)

집 나건디 오라도(회2a) : 출가하기 집고 머리(용3a)

59) 김태곤,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pp.589~591.

‘집 나건디’는 ‘出家’를 언해한 것이다. ‘출가’란 본디 ‘불교에서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드는 것’을 일컫는다. 喜方寺本에서는 ‘집 나가다’로 언해하였고,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출가’라고 하고 註譯에 ‘불가의 나가단 말씀이라’라고 풀이 해 놓아 ‘불가에 들’을 뜻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5) 하나비 : 翁祖(翁祖)

나의 하나비어나(회2a) : 나의 옹죄어나(용3a)

‘翁祖’를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옹조’로 표기하고 註譯으로 ‘조선이라’라고 하였다. 여기서 ‘조선’은 ‘조선(祖先)’을 일컫는 말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하나비’는 ‘한아버’로도 표기되는데, 「석보상절」, 「두시언해」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래는 친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가 아닌 ‘남자노인’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19세기에는 어형의 변화를 가져와 ‘할아버니, 할아버, 할번이, 할범’ 등으로 쓰이다 20세기에 들어서 ‘할아버지, 할아버, 할아버’ 등으로 변화하였다.⁶⁰⁾

(6) 덜 : 伽藍(伽藍)

더린 가 경도 닐그며(회3a) : 가람에 드러 강을 듯고(용5a)

喜方寺本의 ‘덜’은 ‘伽藍’을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표기하였다. ‘가람(伽藍)’은 승려들이 수행하는 곳을 이르는 말로, 산스크리트어 ‘상가 아라마’를 음역한 ‘승가람마(僧伽藍摩)’의 줄인 말이다.

(7) 하전되다 : 방즈(放恣)하다

쁘디 하전되오(회3b) : 뜻을 방즈이흐며(용5b)

60) 김태곤(2008), 앞의 책, pp.451.~452

‘姿情’을 언해한 것이다. ‘하전되다’는 ‘방자(放恣)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중세국어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멸되어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8) 잇다 : 보전(保全)하다

아춤 잇고 나죄 업스니(회4a) : 아춤은 보전하고 저녁은 보전치 못하야(회7a)

‘保’와 ‘不保’를 언해한 것이다. ‘잇다’는 ‘보전(保全)하다’로, ‘업다’는 ‘보전(保全)치 못하다’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9) 낳다 : 희산(解産)하다

나홀 시 님당하도다(회7a) : 희산하는 어려오미(용13a)

‘産’을 喜方寺本에서는 ‘(아기를) 낳다’로, 龍珠寺本에서는 ‘희산(解産)하다’로 언해하였다.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生’이 있다. ‘生’은 喜方寺本에서 ‘나흔(7b)’으로 龍珠寺本에서는 ‘낳는’(14a)으로 언해되었다.

(10) 무거운 : 둥(重)흔

무거운 병흔 툃고(회7a) : 둥흔 병 긋고(용13b)

‘重’을 喜方寺本에서는 ‘무거운’으로,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둥하다’로 언해하였다. ‘무거운’은 ‘므거본 > 므거운 > 무거운’으로 어형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 ‘므거운’으로도 쓰였다. 양 이본의 본문 중에서 ‘重’을 ‘무거운’과 ‘둥(重)흔’으로 언해한 것은 위의 예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양 이본 모두 ‘무거운’으로 표기하고 있다.

(11) 어미 : 즈모(慈母)

어미 즈식 나흔 나리(회7b) : 즈뵈 그더 낫 날에(용14a)

어미 는 주려 도(회8a) : 즈뵈 주리 물(용15b)

어미 는 따 곶 고(회9a) : 즈모 는 싸 흘 상 호 고(용16b)

‘慈母’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 보이는 ‘어미’는 평칭으로 쓰였던 것으로 ‘어머니’를 나타내는 말이다. ‘어머니’를 뜻하는 말을 ‘母’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언해는 양 이본 모두 ‘어미’로 표기하였다.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즈모’라 하였다.

(12) 같다 : 상(象)하다, 비합하다

어미는 따 곶 고(회9a) : 싸흘 상 호 고(용16b)

아버는 하늘 꺄 툷 니(회9a) : 아버는 하늘을 비 합 호 도 다(용16b)

‘象’과 ‘配’를 언해한 것이다. ‘곶다’는 ‘같다(同)’라는 뜻으로 ‘곶하다, 꺄툷다’로도 쓰인다.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상(象)하다’는 ‘본뜨다’라는 뜻으로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비합하다’는 현대국어에서 ‘배합(配合)하다’로 표기되는데 ‘이것저것을 한데 섞어 합친다’라는 뜻이다. 결국,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상하다’와 ‘비합하다’는 喜方寺本의 ‘곶다’와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13) 여희다 : 니별(離別)하다

주거 여 희 르 진 실 로 춤 디 몰 호 거 니 와 사 라 서 여 희 미 더 욱 설 또 다(회10a) : 죽어 니 별 호 매 진 실 노 넛 기 어 럽 고 사 라 니 별 호 매 실 노 또 흔 슬 프 도 다(용18b)

‘여희다’는 ‘別’과 ‘離’를 언해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여희다’는 현대국어에서 ‘여의다’로 어형이 바뀌어 쓰인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세국어와 지금과는 많은 의미 차이가 있다. 중세국어에서 ‘여희다’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이별뿐만 아니라 장소를 떠나거나 계절을 보내거나 추상명사와 멀어지는 것 등 모든 것과의

‘離’를 나타낼 때 쓰였다. 18세기에는 ‘여희다’의 어형이 변화를 겪어 ‘여의다’로 쓰였는데 지금과 같이 ‘死別’을 뜻하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여희다’ 대신 한자어 ‘니별(離別)’을 쓰는 경향을 보이는데⁶¹⁾, 이러한 양상이 위의 용례에 보이는 것처럼 양 이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위 용례의 ‘여희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디옥괴 슈고롤 여희게 흐느니라(회24b) : 디옥에 괴로오물 써나느니라(용45a)⁶²⁾

또다른 의미의 ‘여희다’를 찾을 수 있다. 위의 용례는 ‘힘들고 괴로움에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龍珠寺本에서는 ‘써나다’로 언해하였다.

(14) 즈라다 : 당성(長成)하다

즈라나면(회13a) : 밋그 당성흐매 (용27a)

‘長成’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쓰인 ‘즈라다’는 현대국어에서 ‘자라다’로 ‘成熟’ 또는 ‘成長’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당성’으로 언해하였다.

(15) 거스르다 : 불순(不順)하다

거스러 디답흐며(회13b) : 디답흐기를 불순이흐며(용27a)

‘儻’을 언해한 것이다. ‘거스러’는 ‘거스르다’는 뜻으로 중세국어에서 ‘거스리다, 거슬이다’로 쓰이다가 19세기에는 ‘거슬으다’로 사용되었다. 위의 예는 ‘거스러’와 ‘불순(不順)이흐며’의 대응 외에도 어순을 다르게 하여 풀이한 것에 차이가 있다.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비교해 보면 위의 예처럼 어순이 다르게 해석된 것들을

61) 김태곤(2002), 앞의 책, pp.253~255.

62) ‘여희다’, ‘써나다’ 모두 고유어이므로 다음 장에서 논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여희다’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서 논하도록 한다.

종종 찾아볼 수 있다.

(16) 더러이다 : 누(累)가되다

동성도 더러이며(회15a) : 형테의게 누가 되고(용30b)

‘累’를 언해한 것으로 ‘더러이며’가 사용되었다. ‘더러이다’는 현대국어에서 ‘더럽히다’로 표기된다. 「월인석보」(1459)에서는 ‘더러비다’로 쓰이던 것이 「능엄경언해」(1461) 이후에서는 어형이 변하여 ‘더러이다’로 표기되었다.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누(累)가 되다’로 표기하였다.

(17) 나드리하다 : 출입(出入)하고 왕니(往來)하다

나드리홀 제(회13b) : 출입하고 왕니홀 제(용27b)

‘出入往來’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나드리’는 16세기에 ‘나드리’와 함께 혼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제 쁘도로 하다 : 천즈(擅恣)하다

제 쁘도로 흐느니(회13b) : 뜻을 천즈이 흐기를 일삼아(용27b)

‘擅恣’를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천자(擅恣)하다’의 뜻은 ‘제 마음대로 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다’이다.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함’을 풀어놓은 것이다.

(19) 머기다 : 공양(供養)하다

머글 것 빠다가 아버지 머기물 (회16a) : 응당 음식을 빠가서 아버지 공양흐기를 (용31b)

‘供養’을 언해한 것이다. ‘공양(供養)하다’는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 이바지 함’을 뜻하는 말이다. 현대국어에서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 배 속으로 들여보냄’을 뜻하지만 중세국어에서 ‘머기다’는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였다.

(20) 꺾브다 : 피곤(疲困)하다, 슈고하다

더럽고 꺾바도 (회16a) : 더럽고 졸하고 피곤하고 슈고롭거늘(용31b)

꺾븐 이를 어미 편티 아니흐눅다(회10b) : 아히 슈고흐매 어미 평안티 아니토다(용19b)

‘疲’와 ‘勞’를 언해한 것으로 ‘고단하다’, ‘수고하다’를 의미한다. ‘꺾바도’의 원어형은 ‘꺾브다’로 동사 ‘꺾다(勞)’에서 파생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고단하다(倦, 疲, 勞)’의 뜻으로 쓰였다. 15, 16세기에는 ‘꺾브다’로 표기되었으나 16세기 말 문헌에서는 ‘꺾브다’로 표기되었다. 18세기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나 ‘꺾부다’로 변화였고, 19세기에는 첫음절에서도 ‘·’가 사라져 ‘갓부다’로 표기되었다. 19세기에는 ‘고단하다’의 뜻 이외에 ‘몹시 숨이 차다’의 뜻으로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가쁘다’로 표기되고 있다.⁶³⁾

(21) 말 : 약속(約束)

겨지비 말란(회16a) : 처첩의 약속은(용32a)

‘約束’을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약속에 대한 주역으로 ‘식이는 일이라’라고 풀이해 놓았다.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는 일’이다. 그러니까 처가 하라고 시키는 일 따위를 龍珠寺本에서는 ‘약속’이라고 하고, 喜方寺本에서는 ‘말’이라 한 것이다.

63) 김태곤(2008), 앞의 책, pp. 229~231.

(22) 𠄎 : 측량(測量)

부모의 은과 덕기 그시 업고(회17a) : 부모의 은덕은 측량이 업고(용33a)

‘無量無邊’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𠄎’은 단독으로 쓰일 때 표기방법으로, ‘가장자리, 변방, 경계, 지역, 한도, 끝, 지경, 畔’ 등 의미가 여러 가지이다. 17세기에는 이 말의 어형이 ‘ㄹ’로만 나타난다. 18세기에는 ‘변방, 경계, 지역’에 대한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는 ‘𠄎’이 ‘가’로 쓰이고 있는데 어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도 축소되었다.⁶⁴⁾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측량’은 현대국어에서는 ‘측량’으로 표기되며, ‘기기를 써서 물건의 높이, 깊이, 넓이, 방향 따위를 잴, 지표의 각 지점의 위치와 그 지점들 간의 거리를 구하고 지형의 높낮이, 면적 따위를 재는 일’(표준국어대사전)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23) 말숨 : 범음(梵音)

부테 여툼 가지 말소모로(회17b) : 깊고 둥근 범음으로써(용34b)

‘말소모로’는 ‘梵音’을 언해한 것이다. ‘범음(梵音)’은 부처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로, 龍珠寺本에서 ‘범음’의 註譯으로 ‘부처의 소리라’라고 풀이되어 있다.

(24) 𠄎히다 : 分別(分別)히다

𠄎히여 닐오리라(회17b) : 分別히여 푸리 니르리라(용35a)

‘가르다, 가리다, 分別하다’라는 뜻으로 ‘別’을 언해한 것이다. ‘𠄎히여’는 ‘𠄎히다’의 활용형이다. 중세국어에서 ‘𠄎히다’는 ‘구분(區分)하다, 택(擇)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6세기까지 ‘𠄎히다’의 어형을 보이다가 17세기에는 ‘𠄎히다’가 나온다. 18세기에는 ‘𠄎히다’가 많이 쓰이고, 19세기에는 ‘갈히다’ 형태로 나타난다. 19세

64) 김태곤(2008), 앞의 책, pp.227~229.

기 말에 ‘갈히다’ 또는 ‘가리다’로 쓰이고 있는데 현대국어에선 후자의 경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가리다’는

1.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2.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다
3. 잘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따위를 따져서 분간하다.
4. 똥오줌을 늘 곳에 누다.
5. 치러야 할 셈을 따져서 갚아 주다. ...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중세국어에 비해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⁶⁵⁾

(25) 쇠무적 : 철환(鐵丸)

더운 쇠무저글 머곰고(회21b) : 쫄는 철환을 숨켜(용39a)

‘씻덩이’를 뜻하는 것으로 ‘鐵丸’을 언해한 것이다. ‘쇠무저글’은 ‘쇠 + 무적 + -을’로 ‘쇠’와 ‘무적’이 결합된 복합어에 조사 ‘을’이 붙은 것이다. ‘무적’은 ‘무더기, 덩이’를 뜻한다. 「석보상절」에서 ‘丸은 무저기라’는 구절이 있으며, 「석보상절」과 「능엄경언해」 등에서 ‘핏무적’, ‘흙무적’⁶⁶⁾으로도 사용되었다.

(26) 뉘우치다 : 참회(懺悔)하다

저너 지슨 죄를 뉘우쳐흐며(회22b) : 죄와 허물을 참회흐며(용40a,b)

‘懺悔’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뉘우쳐흐며’의 기본형은 ‘뉘우츠다’이다.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참회’라 하였고, 註譯을 달아 ‘죄를 속흐단 말이라’라고 하였다. ‘속흐다’는 ‘속-’은 ‘贖’을 언해한 것으로 ‘속죄하다’를 뜻한다.

65) 김태곤(2002), 앞의 책, pp.223~225.

66) 남광우(2011), 앞의 사진, p.587.

(27) 양즈(樣姿) : 얼굴, 형용과 모양

어피 양지 네는 곱고(회9b) : 넷 제 아름다운 얼굴과(용17b)

고온 양지 사오나이 되오(회9b) : 옥얼굴이 것거지니(용18a)

어피 양즈논(회9b) : 즈모의 얼굴이(용18a)

양지 사오나이(회15b) : 형용과 모양이 쇠하고 여위면(용31a)⁶⁷⁾

‘形’, ‘容’, ‘顏’, ‘貌’ 등을 언해한 것으로 ‘얼굴, 얼굴, 형상, 양즈, 형용과 모양’이 사용되었다.

양즈는 중세국어에서 다의어로 쓰였다. 이 말은 한자어 ‘樣姿’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17세기까지 쓰이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보통 ‘모양’을 나타냈는데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顏面’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喜方寺本에서 ‘양즈’대신 ‘얼굴’이라 표기하기도 했다.

사르미 얼구리 이나니(회4b) : 사람의 형상이 되느니라(용7b)

중세국어에서 ‘얼굴’은 지금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는데, ‘형체, 몸’과 바탕, 상태’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17세기까지도 ‘형체, 몸, 상태’ 등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18세기에 들어 ‘顏面’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⁶⁹⁾

(28) 슈고(受苦) : 괴로움

슈고흔 은나라(회7a) : 괴로움을 받는 은혜니(용13a)

즈시괴 슈고론(회10b) : 즈식이 괴로오매(용19b)

디옥괴 슈고롤(회24b) : 괴로오물 썬나느니라(용45a)

67) ‘양즈’와 ‘형용’과 ‘모양’ 모두 한자어이지만 얼굴의 유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묶어 논하기로 한다.

68) 김태곤(2008), 앞의 책, pp.70~71.

69)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pp. 283~285.

‘受苦’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한자음 그대로 ‘슈고’로 표기하였으나 龍珠寺本에서는 한자의 뜻을 풀어 ‘괴로움’이라 하였다.

(29) 부모(父母) : 아버지와 어머니

부피 강산 ㄱ티 둥ㅎ니(회10b) : 아버지와 어머니 물과 피 ㄱ치 둥ㅎ시니(용19b)

부모도 브러며(회14a) :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반ㅎ고(용28b)

아버시는 애드라ㅎ며(회17a) : 부모로 ㅎ여곰 애들니이고(용32b)

‘父母’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부모’와 ‘아버시’로, 龍珠寺本에서는 ‘부모’를 풀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모’로 언해하였다. ‘아버시’는 현재에는 ‘아버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버시’와 ‘아버시’가 혼기되던 것이 ‘아버이’로 어형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30) 강산(江山) : 물과 피

부피 강산 ㄱ티 둥ㅎ니(회10b) : 아버지와 어머니 물과 피 ㄱ치 둥ㅎ시니(용19b)

‘물과 피’는 ‘江山’을 언해한 것이다. ‘강(江)’을 고어인 ‘ㄱ름’이 아니라 ‘물’로 표기하였다. ‘ㄱ름’은 국어사에서 17세기까지만 쓰이고 이후에는 언중들의 입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⁷⁰⁾ 이후에는 주로 ‘하슈’로 쓰였는데 龍珠寺本에서는 ‘물’이라 하였다.

(31) 존식(子息) : 아들과 딸

흔 번 존식 나호매(회3b) : 아들을 나호며 딸을 길으고(용5b)

존시기 잠깐 신고ㅎ여도(회10b) : 아들과 딸이 잠간 신고ㅎ거늘(용19b)

아드리 관산 밧기(회10a) : 존식이 관산 밧기(용18b)

70) 김태곤(2008), 앞의 책, p.38.

‘男’과 ‘女’ 또는 ‘兒’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조식(子息)’이라 한 것을 龍珠寺本에서는 ‘아들과 딸’이라 풀어 놓았다. 반대로 喜方寺本에서는 ‘아들’이라 한 것을 龍珠寺本에서는 ‘자식’이라 한 것도 있다.

(32) 남(男)과 여(女) : 스나희와 계집

남즈의 쌌는 희오 므집고 녀이너 쌌는 검고 가브여우니라(회2b) : 만일이 스나희 쌌면 희고 또 무집고 만일이 계집의 쌌면 검고 또 가브여오니라(용4a)

남즈는 이싱의 이실제 ~ 남즈의 모민 줄 알오 녀이는 분 바르고 ~ 녀이너 모민 줄 알어니와(회2b) : 스나희 세상에 이실제 ~ 스나희 몸인 줄 알고 계집이 세상에 이실제 ~ 계집의 몸으로 알너니와(용4a,b)

남즈는 사라실 제 더러 가~ 녀이는 쁘디 하전되오(회3a,b) : 스나희면 세상에 이실 때에 ~ 계집은 세상의 이실 때에 (용5a,b)

‘男’과 ‘女’에 대한 또 다른 언해로, ‘男子’와 ‘女子’라고 하였다.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스나희’는 현대국어에서는 ‘사나이’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사내’를 의미한다. 본래 중세국어에서 ‘스나희’이던 것이 ‘·’가 ‘一’로 변하면서 17세기부터 어형이 ‘스나희’로 변하였다. 주로 ‘스나희’가 쓰였던 것으로 보이나 ‘스나히’의 어형도 찾을 수 있다. 龍珠寺本에서는 모두 ‘스나희’로 표기하였다.

‘계집’은 중세국어에서 ‘겨집’으로 쓰였다. ‘겨집’은 ‘女子’를 뜻하는 평어이면서 ‘婦人’과 ‘妻’의 의미도 나타내는 다의어이다.

쳐즈식 머기문 ~ 겨지브 말란 아므 일도 의종호고(회16a) : 혹 때에 음식을 가져 안해와 즈식을 주디 ~ 쳐첩의 약속은 일마다 쫓고(용31b,32a)

여러 히 디나면 겨집 호야(회14a) : 그리저리 홀 스이에 문득 혼인호고 당가드러(용28b)

‘妻’를 언해한 것으로 ‘아내(妻)’와 ‘겨집’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龍珠寺本에서는 ‘妻’에 ‘妾’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 ‘겨집’은 17세기까지 의미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나 어형 변화를 보여 ‘계집’으로 표기되었다.⁷¹⁾

‘妻’의 또 다른 표기로 龍珠寺本에서 ‘안해’를 찾을 수 있다. ‘안해’가 ‘妻’의 뜻으로 정착된 예는 「宣小」이후에 나타나 16세기 후반부터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해’는 ‘안(內)’의 처격형 ‘안해’에서 유래되었다.⁷²⁾

‘겨집’이 다른 의미로 ‘婚娶’를 언해한 것이 있다. 喜方寺本에서는 ‘겨집하다’라 하였고, 龍珠寺本에서는 ‘혼인하고 당가들다’로 언해하였는데 여기에서 ‘겨집하다’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33) 기(改)하다 : 고치다

어미 양주는 기흐눗도다(회9b) : 즈모의 얼굴이 고치이도다(용18a)

‘改’를 언해한 것이다. ‘기흐눗도다’는 ‘기(改)’에 활용어미 ‘흐눗도다’가 결합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改’를 한자음 그대로 표기하면서 활용어미가 붙은 것이고, 龍珠寺本에서는 ‘改’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이다.

(34) 의종(依從) : 좃다

부모의 교령도 의종티 아니며(회13b) : 가르치는 녁을 아이에 좃지 아니하며(용27b)
겨지비 말란 아므 일도 의종하고(회16a) : 처첩의 약속은 일마다 좃고(용32a)

喜方寺本의 ‘의종’은 ‘依從’을 언해한 것으로 龍珠寺本에서는 ‘좃지’가 사용되었다. ‘좃다’는 ‘따르다’라는 말로 ‘隨’를 뜻한다. ‘좃다’와 대응되는 ‘의종(依從)’은 ‘의지하여 따른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5) 박낙(撲落)하다 : 썩러지다

박낙하여 얼원 것 그트니라(회4a) : 썩러져 영권 타락 그트니라(용7a)

71) 김태곤(2008), 앞의 책, pp. 186~187.

72) 남광우(1983), “중세어문헌에 나타난 순 우리말과 한자대역어 연구Ⅱ”,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인하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12.

龍珠寺本의 ‘썩러져’는 ‘撲落’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표기하였다. 현대국어에서 ‘돌이나 쇠붙이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가 오래 묵어 굵히고 깎이어서 떨어짐’을 뜻하는 말로 ‘剝落’이 있는데, ‘撲落’은 ‘剝落’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36) 슨럼(思念)하다 : 싱각하고 녁너하다

즈시기 나갓거든 스럼흔 은(회10a) : 먼니 흥흐매 싱각하고 녁너흔 은혜니(용18a)

스럼호민 애긋낫도다(회10a) : 싱각하고 녁너호여 간과 애긋쳐지도다(용19a)

‘憶念’을 언해한 것이다. ‘스럼하다’는 ‘사념(思念)하다’는 말로 龍珠寺本에서는 이를 풀어 ‘싱각(思)하고 녁너(念慮)하다’로 언해했다.

(37) 교령(敎令) : ㄱ르치는 녁

부모의 교령도(회13b) : 부모의 ㄱ르치는 녁을(용27b)

龍珠寺本의 ‘ㄱ르치는 녁’은 ‘敎令’을 언해한 것이다. ‘ㄱ르치다’는 15세기에는 ‘敎’와 ‘指’를 의미하는 다의어였다. 현재는 이 말이 어형 분화를 하여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단어로 각각 ‘敎’와 ‘指’의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 18세기까지 ‘敎’와 ‘指’의 의미로 쓰였으나 ‘ㄱ라치다’로 어형이 변하였고, 19세기에 ‘가라치다’ 또는 ‘가르치다’로 표기되었다.⁷³⁾ 龍珠寺本에서는 ‘敎’를 뜻하는 말로 ‘교령’은 ‘부모의 가르침’으로 풀이된다.

(38) 습성(習性) : 버릇

습성이 되어(회13b) : 버르시 이피 성품과 일위(용28a)

73) 김태곤(2008), 앞의 책, pp.113~115.

‘짬’을 언해한 것으로 ‘습성’과 ‘버릇’이 사용되었다. ‘습성(習性)’은 ‘버릇이 되어 버린 성질’이라는 의미를, ‘버릇’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이라는 뜻하는 어휘이다. 여기에서도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이나 말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39) 간슈(看守)하다 : 보슬피다

간슈히리 업스면(14b) : 보슬피 주리 업스며(29a)

‘看侍被’를 諺解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보살피고 지킨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간슈(看守)’라 언해하였고, 龍珠寺本에서는 한자 뜻을 그대로 ‘보슬피다’라 언해하였다.

(40) 좌상(坐床) : 상과 자리

좌상의 들글도 쓰디 아니며(회15b) : 상과 자리의 뒤검과 흙을 썰치고(용31a)

‘床席’을 언해한 것이다. ‘좌상(坐床)’은 ‘사람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을 수 있게 만든 가구’로 앉은뱅이 책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龍珠寺本에서는 ‘床席’을 한자의 뜻 그대로 ‘상과 자리’로 풀어놓았다.

(41) 슈상(殊常)하다 : 괴이하다

느민 슈상히 너겨(회16a) : 다른 사람이 괴이히 녀이고(용31b)

‘怪’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의 ‘슈상(殊常)하다’는 ‘보통과 다르게 이상하고 의심스러움’을 뜻하는 말이다. 龍珠寺本에서는 한자 ‘怪’의 뜻 그대로 ‘괴이하다’라고 하였다.

(42) 식권당(媿氣絶) : 성 다른 이와 닮

식권당이란 그지업시 더접호고 제녀 슬권당이란 소히 호느니(회16b) : 성 다른 이와
높의게는 정이 깊고 스랑이 둥호며 이녀 골육은 문득 소호미 되어(용32b)

‘異姓他宗’을 언해한 것으로 ‘식권당’이 쓰였다. ‘권당(氣絶)’은 본래 ‘친척’을 일컫는 말이다. ‘식권당’은 ‘식(媿) + 권당’으로 된 복합어로 ‘시가(媿家)’를 뜻한다. 喜方寺本에서는 의역하여 ‘식권당’으로, 龍珠寺本에서는 직역하여 ‘성 다른 이와 늑’이라고 표기하였다.

비슷한 형태의 어휘로 ‘슬권당’을 찾을 수 있다. 喜方寺本의 ‘슬권당’은 ‘自家骨肉’을 언해한 것이다. ‘슬권당’은 ‘살붙이, 골육(骨肉)’을 뜻하는 어휘이다. ‘自家’를 喜方寺本에서는 ‘제녀’으로 龍珠寺本에서는 ‘이녀’으로 풀이했는데 ‘녀’은 ‘편’이란 뜻으로 ‘친정 가족’을 ‘제녀 슬권당’, ‘이녀 골육’으로 표기하였다.

(43) 기절(氣絶)하다 : 쓰러지다

기절호여(회17b) : 싸희 쓰러졌다가(용34a)

‘蹶’을 언해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는 ‘기절(氣絶)하다’를 썼고, 龍珠寺本에서는 ‘쓰러지다’를 썼다. ‘蹶’의 뜻은 ‘앉은뱅이’인데, 정신이 아득하여 주저앉는 모양새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한 어휘들 외에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보이는 어휘들이 있다. 여기서 그 대응 양상만을 소개 하겠다.

일시(一時)(회1a) : <u>흔 때</u> (용1a)	흰 뼈(회14b) : <u>백 골(白骨)</u> (용9b)
타향(他鄉)(회14b) : <u>남의 싸</u> (용29b)	일야(日夜)(회10a) : <u>낮과 밤</u> (용18b)
영영(永永)(회14b, 15a) : <u>기리</u> (용29b, 30b)	머글 것(회16a) : <u>음식(飮食)</u> (용31b)
또(회14b, 15b, 16b) : <u>혹(或)</u> (용28b, 31a, 32b)	

위의 예들은 어형은 변화했으나 현대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쓰는 어휘들이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喜方寺本에서는 한자의 뜻을 풀이하여 고유어로 언해되고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한자어로 언해된 예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喜方寺本에서는 고유어가 많이 사용되고 龍珠寺本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

(1) هنگ가지어든 : 혼굴궂트니

주근 후의 𪛗 헝가지어든(회2b) : 죽은 후에 흰 𪛗 혼굴궂트니(용4b)

‘一般’을 언해한 것으로 ‘헝가지어든’과 ‘혼굴궂트니’가 쓰였다. 현대국어에서 ‘一般’은 ‘한모양이나 마찬가지로의 상태’를 의미한다. 喜方寺本에서 사용된 ‘헝가지어든’에서 ‘헝가지’는 현대국어에서 ‘한가지’로 표기되는 어휘로 ‘형태, 성질, 동작 따위가 서로 같은 것’을 뜻한다. 龍珠寺本에서 사용된 ‘혼굴궂트니’는 현대국어에서 ‘한결같다’라고 표기하는 어휘이다.

(2) 저습다 : 절훤다

부터도 저소오며(회3a) : 삼보에 네하야 절훤고(용5b)

‘拜’를 언해한 것으로 ‘저습다’와 ‘절훤다’가 쓰였다. ‘저습다’는 ‘(신이나 부처에게) 절하다’는 뜻으로 15세기에는 「석보상절」, 「법화경언해」 등에서 ‘저습다’로 표기되었다. 현재는 ‘저습다’로 표기된다.

(3) 스이 : 가온대

열들 스이예(회3b) : 열들 가온대(용6b)

흐르 스이예(회24a) : 흐로 가온대(용43a)

‘中’을 언해한 것으로 ‘스이’와 ‘가온대’가 사용되었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스이’는 15세기에는 어형이 ‘스시’였다. ‘△’과 ‘·’의 소실과정을 겪으면서 ‘스시 > 스이 > 사이’의 어형변화가 일어나 현대국어에서는 ‘사이’로 사용되고 있다. 龍珠寺本에서는 ‘中’의 뜻 그대로 풀이하어 ‘가온대’라 하였다. 현대국어에서는 ‘가운데’라고 표기된다. ‘사이’와 ‘가운데’는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이다.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 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4) 나조 : 저녁

나죄 업스니(회4a) : 저녁은 보전치 못햐야(용7a)

새배 나가 나죄 드러와(회15a) : 새벽의 나가 저물게야 도라오미(용30b)

‘暮’를 언해한 것으로 ‘나조’, ‘저녁’, ‘저물다’가 쓰였다. 본래 ‘나조’는 ‘夕’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어휘이다. 18세기부터 ‘나조’와 ‘저녁’이 동의구조를 이루었다.⁷⁴⁾ 龍珠寺本에서는 ‘暮’의 뜻을 풀이하어 ‘저물다’로 언해하였다.

(5) 새배 : 식벽, 새벽

새배 모닷다가(회4a) : 이른 식벽에 모히여 오다가(용7a)

새배 나가 나죄 드러와(회15a) : 새벽의 나가 저물게야 도라오미(용30b)

‘晨’을 언해한 것으로 ‘새배’와 ‘식벽’, ‘새벽’이 사용되었다. ‘새배’는 18세기 후반의 문헌에서도 발견되는데 ‘새벽’, ‘식벽’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74) 김태곤(2002), 앞의 책, p.180.

(6) 얼의다 : 엉기다

얼원 것 ㄱㅌ니라(회4a) : 엉권 타락 ㄱㅌ니라(용7a)

얼원 피 ㄱㅌ니라(회4a) : 엉권 피 ㄱㅌ니라(용7b)

‘凝’을 언해한 것이다. ‘얼의다’는 중세국어에서 ‘응고하다, 어리다, 서리다, 미혹되다’의 뜻으로 쓰였으나 후에 어형이 ‘엉기다’와 ‘얼의다’로 분화되었다. 17세기부터 분화가 일어나는데 ‘엉기다’는 어형이 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 ‘엉기다’로 표기되며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 무리를 이루거나 달라붙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얼의다’는 어형이 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 ‘어리다’로 표기되며 ‘눈에 눈물이 조금 꺾다. 어떤 현상, 기운, 추억 따위가 배어 있거나 은근히 드러나다. 빛이나 그림자, 모습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다. 연기, 안개, 구름 따위가 한곳에 모여 나타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7) 그지업다 : 그음이 업다

그지업스며(회7a) : 그음이 업스니(용13b)

스량이 그지업도다(회8a) : 어엿비 녀여 재를 일흐미 업도다(용15a)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그음이 업스니’는 ‘難成記’를 언해한 것이고, ‘일흐미 업도다’는 ‘無失’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이들 모두를 ‘그지업다’로 언해했다. ‘그지업다’는 ‘끝이나 한량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음’은 중세국어에서 ‘그슴’이었던 것이 16세기 후반에 ‘△’이 소실되면서 ‘그음’으로 나타난다. 의미는 ‘한정, 한도, 기한’ 등이다. 이 말은 18세기까지만 쓰이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⁷⁵⁾

즉, ‘그지업다’, ‘그음이 업다’, ‘일흐미 업다’ 모두 ‘끝이 없음’으로 풀이된다.

75) 김태곤(2008), 앞의 책, pp.32~33.

(8) 시름 : 근심

시름 니즌 은이라(회7b) : 근심을 짓는 은혜니(용13b)

‘憂’를 언해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는 ‘시름’이, 龍珠寺本에서는 ‘근심’이 사용되었다. ‘시름’의 원 어형은 ‘시름’이다. 그런데 ‘시름’으로 표기한 것은 필자가 발음에 충실한 표기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9) 괴다 : 스랑ㅎ다

괴노라ㅎ니 즐겁도다(회8b) : 스랑ㅎ여 희롱ㅎ매 다 능히 즐겁도다(용16a)

‘寵’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의 ‘괴다’가 龍珠寺本에서는 ‘스랑ㅎ다’로 바뀌어 쓰였다. ‘괴다’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예스러운 표현으로)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라고 풀이되어 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소멸되어 쓰지 않는 어휘이다.

(10) 치다 : 기르다

젓 머겨 치논 은니라(회9a) : 젓 먹여 기르논 은혜니(용16b)

‘養’을 언해한 것이다. ‘치다’는 ‘기르다’와 ‘봉양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기르다’의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치다’는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동물이 새끼를 낳거나 까다’로 풀이되고 있어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에게 ‘치다’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이나 식물에게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사람과 동물에게도 사용되던 말이 현대국어에 와서 동물에게만 사용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11) 저물다 : 못다

저르도록 앓겨흐며(회9a) : 날이 못드록 앓기로(용17a)

‘終日’을 언해한 것이다. ‘못다’는 ‘마치다’라는 뜻이며, ‘날이 못드록’은 ‘終日’을 뜻풀이한 것이다.

(12) 슬지다 : 무로눅다

곱고 슬지더니(9b) : 고으미 심히 풍성하고 무로눅도다(17b)

‘豊濃’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슬지다’는 현대국어에서 어형이 ‘살지다’이며 ‘살이 많고 튼실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龍珠寺本에서는 ‘풍성하고 무로눅다’로 표기했는데, ‘무로눅다’는 현대국어에서 어형이 ‘무르눅다’이며 ‘과일이나 음식 따위가 충분히 익어 흐무러지다, 일이나 상태가 한창 이루어지려는 단계에 달하다’의 뜻을 지닌다. 15세기에는 ‘므르눅다’이던 것이 원순모음화 등의 음운변화로 인하여 ‘무로눅다’로 쓰였다.

(13) 사오납다 : 꺾거지니, 괴이하다, 쇠하다

고온 양지 사오나이 되오(회9b) : 옥얼골이 꺾거지니(용18a)

다른 사오나온 이를 조츠며(회15a) : 괴이한 도를 좇차(용30a)

양지 사오나이 되민(회15b) : 형용과 모양이 쇠하고 여위면(용31a)

‘摧’, ‘惡’, ‘異端’, ‘羸’ 등을 언해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사오납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열등하다, 열악하다, 약하다, 거칠다, 퇴폐하다, 나쁘다, 기구하다, 어리석다, 웅졸하다, 박하다, 범하다’ 등이다. 19세기에는 ‘사오납다’가 ‘猛’의 뜻으로 주로 쓰였고, 19세기 말에 ‘사납다’로 음절이 단축되었다.⁷⁶⁾

(14) 모딘 : 몹쓸, 사오나온

76) 김태곤(2002), 앞의 책, pp.245~250.

모딘 업 진논(회10b) : 몰쓸 업을 짓논(용19a)

모딘 사르물 조차(회13b) : 사오나온 벗호고(용28a)

‘惡’을 다르게 언해한 것이다. (13)에서 보았듯이 ‘惡’은 ‘사오납다’로 언해되기도 했는데 동일한 한자에 대해 언해차를 보이는 것은 ‘모딜다’와 ‘사오납다’ 간에 유의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딘 계고호느니라(회13b) : 드더여 미친 계교를 호야(용28a)

위의 용례에서 보이는 喜方寺本의 ‘모딜다’는 한자로 ‘強’이 언해된 예이다. 그와 대응되는 어휘로 龍珠寺本에서는 ‘狂’을 쓰고 ‘미치다’로 언해하였다. 양 이본의 판각 시기가 약 200여 년이 차이가 나므로 한문 사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위의 ‘모딘’과 ‘미친’은 사용된 한자에서부터 차이가 나므로 유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5) 섭다, 구치다 : 슬프다

더욱 설쁘다(회10a) : 실노 쏘흔 슬프도다(용18b)

혹 설위(회14b) : 혹 슬퍼호기롤(용29b)

어미논 그 므스물 구치노도다(회10b) : 어피 므음으로 호여곰 슬프게 호도다(용19b)

‘傷’, ‘心酸’, ‘悲哀’를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이들 모두를 ‘슬프다’로 풀이하였지만 喜方寺本에서는 ‘섭다’와 ‘구치다’로 각각 풀이했다. ‘섭다’의 뜻은 ‘섭다, 괴롭다’이고, ‘구치다’의 뜻은 ‘긋히다, 상하게 하다’이다.

(16) 쫘다 : 썩로다

므스미 서로 조차 갖고(회10a) : 므음이 서로 썩로니(용18b)

‘逐’을 언해한 것으로 喜方寺本에서는 ‘쫓다’로 龍珠寺本에서는 ‘썩로다’로 표기하였다.

(17) 머리, 먼니

즈시기 머리 나가면(회10b) : 먼니 헝헝여 가(용19b)

‘머리’와 ‘먼니’는 ‘遠’을 언해한 것으로 15세기에는 ‘머리’로 표기되다 17세기가 되어서 ‘멀리’의 어형이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멀리’로 표기된다. ‘먼니’는 18세기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먼니’는 자음동화된 표기이다.

(18) 서재다 : 눅다

말숨과 헝시리 서재여(회13b) : 말과 헝실이 눅흔체 헝며(용27b)

‘高’를 언해한 것으로 ‘서재다’와 ‘눅다’가 나타난다. ‘서재다’는 ‘대담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휘로 ‘서지다’라고도 표기하였다. 18세기 「동문유해」(1748) 등에서 ‘서재다’를 찾을 수 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이다. 龍珠寺本에서는 ‘高’의 뜻을 풀어 ‘눅흔체 헝다’로 표기하였다.

(19) 달애이다 : 꺾이다

느미 달애여든(회14a) : 사람의 꺾이물 넘어(용28b)

‘誘’을 언해한 것이다. ‘달애이다’는 ‘달램을 받다, 유혹을 받다, 꺾이다’라는 뜻을 가진다. ‘달애이다’는 ‘달애다’의 활용형태이고, ‘달애다’는 어형변화로 ‘달래다’가 되어 현대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표준국어사전에 ‘달래다’는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흥분한 사람을 어르거나 타일러 기분을 가라앉히다,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흥분한 감정 따위를 가라앉게 하다, 좋고 옳은 말로 잘 이끌어 꺾다’ 등으로 뜻이 풀이되어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

세국어에서 사용된 ‘달애다’는 긍정적인 상황 외에도 ‘속임을 당하다, 좋지 않은 일에 피이다⁷⁷⁾’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있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시기를 겪는 과정 중에 의미가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 조심하다 : 삼가다

조심티 몰흐야(회14b) : 삼가지 못흐야(용28b)

‘謹’을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謹’의 뜻을 그대로 언해하여 ‘삼가다’라 한 것이다.

(21) 더디다 : 버리다

거리에 더디느니(회14b) : 길거리에 버려(용29a)

‘棄’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더디다’는 ‘던지다’이다. 길거리에 버려짐을 ‘더디다’로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한자의 뜻 그대로 언해하였다. ‘버리다’에서 어형 변화가 일어나 ‘버리다’가 되어, 현대국어에서 ‘버리다’로 쓰인다.

(22) 죽다 : 목숨이 마친다

인하여 주거도(14b) : 일노 인하여 목숨이 마친매(29a)

즈시기 주그면(23b) : 몸이 허러지고 목숨이 마친면(41a)

‘命終’, ‘命殄’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의역하여 ‘죽다’로 표기하였고, 龍珠寺本에서는 한자의 뜻 그대로 직역하여 ‘목숨이 마친다’로 표기하였다.

‘마친다’는 ‘(일 또는 목숨 등이) 끝남’을 의미하는 어휘로, 현대국어에서 ‘마치다’로 쓰인다.

77) 사오나온 이레 달애여(飜小6:1), 世俗이 중의 소기며 달애음을 믿어(宣小5:54)

(23) 아습 : 겨레

아습과 훈디 노로미(회14b) : 문득 겨레들노 더브러(용29b)

‘아습’은 ‘親族’을 언해한 것이다. ‘아습’은 ‘겨레, 친족, 친척’ 등의 뜻을 가지고 사용된다. 龍珠寺本에서는 ‘겨레’라고 언해하였다. ‘아습 > 아음’의 어형변화를 겪고 17세기까지 쓰였으나 소멸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24) 훈디 : 모히다

훈디 노로미(회14b) : 더브러 즐겁게 모히이미(용29b)

‘훈디’는 ‘會’를 언해한 것이다. ‘훈디’는 ‘한곳, 한데’를 뜻하는 어휘로 원 어형은 ‘훈디’이고, ‘·’의 소실로 어형이 ‘훈디’로 변화하였다. 喜方寺本에서는 ‘훈디’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기로 추정된다. 龍珠寺本에서 보이는 ‘모히다’는 현대국어에서는 ‘모이다’로 표기된다. ‘會’를 ‘한 곳에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喜方寺本에서는 ‘훈디’로, 龍珠寺本에서는 ‘모히다’로 표기하였다.

喜方寺本의 ‘훈디’와 대응되는 표현으로 龍珠寺本의 ‘붓드러’가 있다.

훈디 모셔시미(회15a) : 붓드러 피시물(용30b)

‘붓드러’의 기본형은 ‘붓들다’이고 ‘붓드다’에서 어형변화하여 ‘붓들다’가 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붙들다’로 표기된다. ‘한 곳에 머무르게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어기다 : 어그러지다

훈디 노로미 어기여디고(회14b) : 즐겁게 모히이미 기리 어그러지면(용29b)

‘어기여디고’는 ‘乖’를 언해한 것이다. ‘어기다’는 현대국어에서 ‘어기다’로 표기

된다. ‘어그러지면’은 15세기에는 ‘어그르츠다, 어그리츠다’ 등으로 사용되었고, ‘어기다. 어긋나게 하다’로 풀이된다. 이후 ‘어그릇다, 어그룬다, 어그릇다, 어그릇다, 어글웃다’ 등 여러 어형으로 사용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어그러지다’로 표기되고 있다.

(26) ㅁ술 : 동너 ㅁ을

ㅁ술희 죄 니브며(회15a) : 동너 ㅁ을을 거운더리어 범호고(용30a)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ㅁ술’은 ‘鄉閭’를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는 ‘동너 ㅁ을’이라 언해했다. 양 이본의 ‘ㅁ술’과 ‘ㅁ을’을 비교해 보면 어형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ㅁ술 > ㅁ을 > ㅁ을 > 마을’로 어형변화가 되어 현대국어에서 ‘마을’로 표기되고 있다.

(27) 죄 닙다 : 거운 더리어 범호다

ㅁ술희 죄 니브며(회15a) : 거운 더리어 범호고 술 먹으며(용30a)

喜方寺本의 ‘죄 닙다’는 ‘觸犯’을 언해한 것으로, 龍珠寺本에서는 ‘거운 더리어 범호고’로 언해되었다. ‘거운’의 기본형은 ‘거우다’로 ‘겨루다, 대적하다’로 풀이되고, ‘더러이다’는 ‘더럽히다’로 풀이된다. ‘범하고’는 ‘犯’을 음역한 것이다.

(28) 원 : 그르다

원 일 지서(회15a) : 간사호고 그르고 허물되어(용30a)

喜方寺本에서 ‘원’은 ‘非’를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에서 ‘그르다’로 언해되었는데, ‘원’과 ‘그르다’는 유의어이다. 중세국어에서 ‘원’은 ‘그릇된, 잘못된’, ‘좌측’, ‘온, 모두’의 뜻을 가진 다의어인데,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그릇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29) 손 : 나그네

손 ㄱ티 너겨 다룬 지비(회15b) : 마치 나그네 늙의 집의(용31a)

‘客’을 언해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의 ‘손’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手, 客, (바둑이나 장기의) 수, 덩굴손(蔓)’ 등을 의미를 가지고 쓰였는데, 여기서는 ‘나그네’를 의미한다.

(30) 들글 : 뭉검

좌상의 들글도(회15b) : 상과 자리의 뭉검과 흙(용31a)

‘塵土’을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보이는 ‘들글’은 ‘티끌’을 의미한다. ‘들글’의 원 어형은 ‘드틀’이며 ‘드틀 > 들글’로 어형변화가 일어났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塵土’는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 풀이했다. 喜方寺本에서는 ‘塵土’를 통틀어 ‘들글’이라 했지만 龍珠寺本에서는 ‘뭉검과 흙’이라 풀이했다. ‘뭉검’은 고어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어휘이다. 다만, 한문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자 ‘塵’에 대응되는 말이므로 ‘뭉검’의 의미가 ‘티끌’이라 추측할 뿐이며 소멸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31) 잠싼 : 적이

잠싼 구지저도(회16b) : 적이 꾸지즈면(기32a)

‘微’를 언해한 것이다. ‘잠싼’은 ‘잠깐, 조금’으로, ‘적이’는 ‘적이, 적게, 좀’으로 해석된다. 여기서는 모두 ‘조금’을 의미한다.

(32) 남진 : 지아비

남지는 티고 구지저도(회16b) : 지아비 치고 꾸짓는 거순(영32a)

남진 조차(회16b) : 지아비를 쏟와(용32b)

‘夫’를 언해한 것이다. ‘남진’은 중세국어에서 ‘남자’와 ‘남편’의 의미로 활발히 쓰였으나, 지금은 소멸되어 쓰지 않는 어휘다. 이 말은 19세기 이후 소멸되었고 전부터 사용되던 ‘남편’이 ‘남진’을 대신하여 쓰게 되었다.⁷⁸⁾

(33) 이숙다 : 이욱혀여

귀절 혀여 이숙게사 씨여(회17b) : 짜희 쁘러졌다가 이욱혀여 비로소 씨어나(용34a)

‘久乃’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의 ‘이숙게사’는 ‘이숙- + -게사’의 형태를 보이는 어휘이다. ‘이숙다’의 원 어형은 ‘이숙하다’이며 ‘오래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다. 龍珠寺本의 ‘이욱혀여’는 ‘얼마 있다가, 한참 있다가’의 뜻을 가진다. ‘久乃’를 언해한 것인데 의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4) 이제사 : 이제야

이제사 아스오니(회17b) : 이제야 씨드라(용34a)

喜方寺本의 ‘이제사’는 ‘今’을 언해한 것이다. ‘이제 + -사’가 결합한 형태로, 龍珠寺本에서는 ‘이제야’로 어형이 변하였다.

(35) 아스오니 : 씨든다

이제사 아스오니(회17b) : 이제야 씨드라(용34a)

‘知’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의 ‘아사오니’는 ‘알- + -스오니’의 형태로 ‘알다’에서 ‘ㄹ’이 탈락했다. ‘-스오니’의 원형은 ‘-사보니’이다. ‘-사보니 > -스오

78) 김태곤(2008), 앞의 책, pp.42~44.

니 > -으오니 > -오니'로 어형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오니'로 쓰이고 있다. 龍珠寺本에서는 '씨드라'는 원 어형인 '씨든다'의 활용형태이고, 현대국어에서는 '깨닫다'라고 표기된다.

(36) 눈즈스 : 눈청

갈로 눈즈스를 붙아 내여(회19a) : 칼을 잡아 부모를 위하야 그 눈청을 베여(용36b)

‘眼睛’을 언해한 것이다. ‘눈즈스’는 ‘눈자위’를 일컫는 말이다. 원 어형은 ‘눈즈스’인데 ‘△’이 소실되면서 ‘눈즈스’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눈즈스 > 눈즈의 > 눈즈위 > 눈자위’로 어형 변화되어 현대국어에서는 ‘눈자위’로 쓰인다. 龍珠寺本의 어형인 ‘눈청’은 ‘눈망울’의 경상도방언이다. 龍珠寺本이 판각된 용주사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상도방언이 나타난다. 龍珠寺本은 어느 개인이 언해한 것이 아니라 정조의 명으로 관료들이 언해한 것이다. 관료들이 언해하던 과정 중에 경상도 방언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7) 에우다 : 두루다

그물로 에윳고(회23b) : 그물을 두루고(용42a)

‘周廻’를 언해한 것이다. ‘에우다’와 ‘두루다’ 모두 ‘둘러싸다, 두르다’의 뜻을 가진다.

(38) 무쇿믈 : 구리즙

우레 티며 무쇿므리(회23b) : 우레 드르며 번개 번득이고 구리즙을 녹여(용42a)

‘銅鐵汁’을 언해한 것이다. ‘銅鐵’을 喜方寺本에서는 ‘무쇿’로, 龍珠寺本에서는 ‘구리’로 언해하였다.

(39) 쇠가히 : 구리개

쇠뿔얌과 쇠가히(회23b) : 쇠뿔얌과 구리개(용42a)

‘銅狗’를 언해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가ᄃᆞ(狗)’가 근대국어에서 ‘개’로 어형 변화한 것이다.

(40) 쇠적곳 : 쇠솓치

쇠적곳과 쇠마치와(회23b) : 쇠솓치와 쇠방마치와(용42b)

喜方寺本의 ‘쇠적곳’은 ‘鐵串’을 언해한 것이다. ‘쇠적곳’은 ‘쇠로 만든 적(炙)꽃이’를 말한다. ‘쇠솓치’는 ‘쇠꼬챙이’를 말하는 것이다.

(41) 쇠술위 : 쇠수리

쇠술위로 오장을 미여(회24a) : 쇠수리에 쁘저 창즈와 가슴과(용43a)

‘鐵車’를 언해한 것이다. ‘술위’는 ‘수레’로 어형 변화 하였다. ‘수리’는 17, 18세기에 나타난 어형이다.

(42) 띠다 : 찢다

오장을 미여(회24a) : 쁘저 창즈와 가슴과 뼈와 고기 탁고(용43a)

‘分裂’을 언해한 것이다. ‘띠다’는 17세기까지 사용되다가 소멸하여 현재는 쓰지 않는 어휘다. 龍珠寺本에서는 ‘찢다’로 표기되었다. ‘띠다’와 ‘찢다’ 모두 ‘찢다’로 풀이된다.

(43) 일우다 : 짓다

흔 권 일우면(회24b) : 흔 권을 지으면(용44b)

‘造’를 언해한 것이다. ‘일우다’는 15세기에 ‘일오다’로도 쓰였는데, ‘이루다, 되다’를 이르는 말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루다’로 표기된다. ‘지으면’은 ‘짓다’의 활용형으로 15세기에는 ‘지스면’로 표기되었던 것이 ‘△’이 소실되면서 ‘지으면’이 되었다.

이상으로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만큼이나 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멸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16세기 말과 18세기 말에 어휘들의 쓰임과 어형 변화와 의미 분화가 이루어진 어휘들을 현대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3.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

(1) 화동(和同)하다 : 순(順)하다

거스려 화동티 아니여(회13b) : 모질고 패려하고 순치 아니혀여(용28a)

‘調’를 언해한 것으로 ‘화동’과 ‘순하다’가 사용되었다. ‘화동(和同)’은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뜻이 잘 맞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 ‘순(順)하다’는 ‘성질이나 태도가 까다롭거나 고집스럽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2) 동생(同生) : 형제(兄弟)

동싱도 티며 구짓고(회13b) : 형테를 치며 꾸짓고(용27a)

동싱도 더러이며(회15a) : 형테의게 누가 되고(용30b)

‘兄弟’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동생(同生)이라 표기했는데, 이는 ‘(한 어머니에게서) 함께 낳’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동생’이라고 표기되며 ‘아우(弟)’를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父母恩重經諺解』에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龍珠寺本에서는 音譯하여 ‘형데’라 하였다.

(3) 구의(救醫)하다 : 구(救)하다

구의 히리 업서(회14b) : 구 히리 업서(용29a)

‘救’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 ‘구의하다’는 ‘구하여 치료하다’의 뜻을 가진다. 龍珠寺本에서는 ‘救’의 한자음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4) 죄(罪) : 형벌(刑罰)

죄 니버(14b) : 형벌을 넘어(29a)

‘刑’을 언해한 것이다. ‘죄(罪)’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말하고, ‘형벌(刑罰)’은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말한다. 엄격하게 보면 다른 뜻을 가졌지만 여기서의 ‘죄’는 후자의 뜻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 안부(安否) : 기거(起居)

안부도 묻디 아니며(회16a) : 기거를 묻기 일노 조차 긋쳐져(용31a)

‘起居’를 언해한 것이다. ‘안부(安否)’는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을 뜻하는 어휘고, ‘기거(起居)’는 ‘일정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따위의 일상적인 생활

을 함, 또는 그 생활'을 뜻하는 어휘이다.

(6) 미가(未嫁) : 혼인(婚姻) 아니하다

미가 혼여셔논(회16b) : 혼인 아니 혼여실 째에(용32a)

‘未嫁’를 언해한 것이다. 喜方寺本에서는 한자음 그대로 음역한 것이고, 龍珠寺本에서는 한자의 뜻을 풀어 언해하였다.

(7) 양얼(殃孽) : 양화(殃禍)

양어를 만나느니라(회23b) : 양화를 받아(용42b)

‘殃’을 언해한 것이다. ‘양얼(殃孽)’과 ‘양화(殃禍)’ 모두 ‘재난’이나 ‘재앙’을 나타내는 말이다.

(8) 부모(父母) : 야양(爺孃)

부뵈어나 홀시(회2a) : 여러 디 야양일시(용3a)

‘爺孃’을 언해한 것이다. 龍珠寺本의 ‘야양’은 부모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龍珠寺本의 한문본에서 부모를 가리키는 말을 주로 ‘爺孃’이 사용되었다.

위의 예들 외에도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를 보이는 어휘들이 있다.

건실(健實)타(회7b) : 건장(健壯)호물(용14b)

손(損)호눗도다(회9b) : 상(傷)호도다(용18a)

녕호니(靈魂)(회14b) : 귀신이(鬼神)(용30a)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에서 찾아본 어휘들은 대체로 현대국어에서도 사용하

고 있는 것들이었다. 다만, 약간의 의미축소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 쓰임에 있어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론

본고는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인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비교 연구하여 후기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각 이본의 특징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표기, 음운, 형태, 어휘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성은 양 異本 모두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자음을 모두 사용하였다. ‘△’은 喜方寺本에서만 사용되었다.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는 양 異本 모두에 나타나지만 병서에 사용된 자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성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모음자들 외에 ‘· ·이’이 사용되었다. 종성의 표기는 喜方寺本은 8종성법에, 龍珠寺本은 7종성법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종성에서 겹받침은 龍珠寺本에서만 나타난다. 喜方寺本에서는 받침을 아래위로 표기하여 종성이 두 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양 이본 모두 연철, 분철, 중철 표기가 모두 나타난다. 喜方寺本에서는 연철 표기가 우세하고, 龍珠寺本에서는 분철 표기가 많이 나타난다.

음운은 양 이본 모두 ‘·’의 동요와 함께 모음조화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원순 모음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들 모두는 龍珠寺本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사용에도 차이가 있다. 喜方寺本에서는 ‘△’을 사용하지만, 龍珠寺本에서는 모두 소실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구개음화와 격음화,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龍珠寺本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판각본인 喜方寺本에서는 자음탈락 현상으로 ‘ㄱ’탈락 현상이, 근대국어 시기의 판각본인 龍珠寺本에서는 어중 모음 간 ‘-르-’ 표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법에서는 다른 규칙들은 배제하고, 조사와 어미에 국한하여 논하였다.

조사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누었다. 격조사의 사용을 살펴보면, 주격 조사에 ‘-이, -ㅣ, Ø’가 나타나고, 보격 조사도 ‘-이, -ㅣ, Ø’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龍珠寺本에서 보격 조사로 ‘-가’가 나타난다. 목적격 조사는 양 이본 모두 ‘-을/을’, ‘-를/를’이 사용되었다. 서술격 조사로 ‘-이라, -라, -ㅣ라’가 사용되었는데 서술격 조사는 龍珠寺本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관형격 조사는 喜方寺本에서 ‘-의, -의’, 龍珠寺本에서 ‘-의’를 사용하였다. 부사격 조사는 처소, 도구, 비교로 나

누어 살펴보았는데,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 喜方寺本에서 ‘-에, -이, -의’, 龍珠寺本에서 ‘-에’가 쓰였다. 도구의 부사격 조사로 喜方寺本에서 ‘-로’, 龍珠寺本에서 ‘-로, -로써’가,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喜方寺本에서 ‘-와’, 龍珠寺本에서 ‘에서, -와’가 사용되었다. 호격조사는 喜方寺本에서 ‘-하’, 龍珠寺本에서 ‘-아’가 쓰였다. 접속조사로 양 異本 모두 ‘-와/과’를 사용하고 있다. 보조사는 양 이본에서 대체로 ‘-은, 는, -어나’ 등이 사용되었으며, 喜方寺本에서는 ‘-란’이, 龍珠寺本에서는 ‘-썩지’가 나타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누었다. 선어말 어미는 다시 높임, 시제, 의도의 선어말 어미로 분류하였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양 異本 모두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을 사용하지만 객체 높임은 사용하지 않았다. 시제 선어말 어미에서 현재시제에 ‘-느-’, 미래시제에 ‘-리-’, 회상시제에 ‘-더-’가 나타난다. 喜方寺本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의도의 선어말 어미로 ‘-오/우’가 쓰인다. 종결어미는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으로 나누었다. 양 異本 모두 평서형에는 ‘-다’, ‘-라’가, 명령형에는 ‘-라’가 사용되었다. 의문형은 喜方寺本에서 ‘-고’, ‘-가’, 龍珠寺本에서 ‘고’, ‘-뇨’가 쓰였다. 연결어미에서 대등적 연결어미로 양 異本 모두 ‘-고’가 쓰였고, 종속적 연결어미로 喜方寺本에서 ‘-니’, 龍珠寺本에서 ‘-니, -면, -란’ 등이 나타났다. 전성어미는 양 이본 모두 명사형 전성어미로 ‘-口’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ㄴ’이 사용되었다. 龍珠寺本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 관형사형 전성어미 ‘-르’가 나타난다.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으로 나누었다. 먼저,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에서 한자어들은 音譯하여 표기한 반면 고유어는 한자어의 뜻을 풀이하는 형태들이 주를 이룬다. 喜方寺本에서는 고유어의 사용이 많은 반면, 龍珠寺本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에서는 비슷한 뜻을 가진 유의어들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원 어형을 밝혀 어형변화나 의미변화를 일으킨 어휘들을 살펴보았다.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의 경우 비슷한 의미를 지닌 한자어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현대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과 고유어와 고유어의 대응 양상이 두드러졌으나 한자어와 한자어의 대응 양상은 소수가 보였다.

이상으로 「父母恩重經諺解」의 喜方寺本과 龍珠寺本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양 이본의 표기에서 보수적인 양상이 나타나긴 하나 喜方寺本은 중세국어의 문헌들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龍珠寺本은 근대국어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음운에서 많은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양 이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어휘였다. 이는 필자들이 한문본을 번역하는 과정과 번역방법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의 연구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인다. 양 이본의 판각이 된 곳이 경기도와 경상도라는 지역적 차이가 큰 만큼 지역적 차이에 의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시기적 차이의 연구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아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자료

태학사(1986),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韓國語學資料叢書 第7輯, 태학사.

◆ 단행본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 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2 :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김중훈 외(2008), 「한국어의 역사」, 집문당.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도서출판 박이정.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남광우 편(2011), 「고어사전」, 교학사.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백응진(1999), 「한국어 역사음운론」, 박이정.

안병희 · 이광호(2009),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유창돈(1985), 「이조어사전」, 어문각.

이기문(1994),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4」, 어문각.

◆ 논문

김태곤(1981), “소학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곤(1989), “후기중세국어의 다의어 일고”, 「백록어문」 제6집, pp.25~50.

- 김희선(2007),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연결어미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광우(1983), “중세어문헌에 나타난 순우리말과 한자대역어 연구 II”, 「인문과학 연구소논문집」, 인하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pp.5~26.
- 방옥산(1976), “부모은중경의 고찰<국학어> : 음운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26~241.
- 송경미(2009),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어휘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일기(2000), “한국본 『부모은중경:한문』의 판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19집, pp.179~211.
- 송일기(2001),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초역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 pp.181~198.
- 송일기·박민희(2010), “새로 발견된 호남판 <父母恩重經諺解> 4종의 서지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2호), pp.209~228.
- 신중진(1996), “율사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국어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29~254.
- 안대현(2007), “한국어 자구개음화의 발생 시기와 발생 지역 : 15세기와 16세기의 한글 문헌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제8집, pp.317~357.
- 유필재(1997), “화장사판 《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진단학보」, 진단학회, pp.227~237.
- 윤가영(2005), “<父母恩重經諺解>(송광사본)의 국어학적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6), “<父母恩重經諺解>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규(2001), “<장수경언해>의 표기·음운사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20집, 언어과학회, pp.249~272.
- 이상녀(2002), “『가례언해』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제11호, 박이정, pp.181~200.
- 이승녕(1972), “17세기 초기 국어의 형태론적 고찰”, 「이승녕동양학2」, 단국대학부

설동양학연구소, pp.1~37.

이진호(2011), “『진법언해』의 표기와 음운”, 언어과학회, pp.137~158.

이호권(2005), “父母恩重經諺解의 이본에 대한 연구 : 초역판 계통의 유간기 판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0집, pp.65~87.

정재영(2005), “불갑사 소장의 화암사판 『부모은중경』에 대하여 :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p.211~244.

최송이(2003), “『부모은중경』의 언해본 비교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홍렬(1990), “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 송광사본과 남고사본의 이본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홍주(1989), “『불설대보父母恩重經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 이본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Abstract>

The Korean Linguistic Studies on
'Bumo-eunjung-gyeong-eonhae'
-Based on Huibangsa edition and Yongjusa edition-

Kang, Seong-mi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aspect of Korean linguistic characteristic change when late medieval Korean turned into modern Korean by comparing two editions of 'Bumo-eunjung-gyeong-eonhae', Huibangsa edition and Yongjusa edition. Also, it focuses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dition.

The result has been analysed as follow.

1. Writing system: divided into initial consonants, medial vowels, and final consonants

Consonants used in modern Korean were written as initial consonants in each edition, and fortis which consists of the same or different consonants were used as initial consonants. However, '△' only appeared in Huibangsa edition. 7 short vowel system and diphthong in the 15th-century Korean appeared to be used as medial vowel as they are reflected in each book. In

the representation of final consonants Huibangsa edition followed 8 final spelling rule and Yongjusa edition followed 7 final spelling rule. Closed syllables which end with two consonant cluster appeared only in Yongjusa edition. Both book were written phonetically, morphologically or mixing both styles.

2. Phonology

In vowel sound, '·' was used less often, and the breaking of vowel harmony and rounded vowelization were shown in both editions. In consonant sound, palatalization, aspirated consonantalization and fortisization were shown. Such phonological features all appeared prominently in Yongjusa edition. Consonant 'ㄱ' that followed vowel 'ㅣ' or final consonant 'ㄹ' disappeared in Huibangsa edition, and writing '-ㄹㄴ-' between each vowels in two consecutive syllables showed up in Yongjusa edition.

3. Syntax: covers limited to the study of postposition and ending

Postposition in each edition divided into honorific, conjunctive, and auxiliary postposition, and it was examined. Ending in each edition divided into pre-final ending, final ending, conjunctive ending and derivative ending, and it was analyzed.

4. Lexicon: based on correspondence pattern of the native language and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in each edition.

Native language was used more in Huibangsa edition and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native languages in each edition. All of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in both edition are words used in modern Korean.